

2012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2012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12년 4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 목차

## 발간사

### I. Towards Global Eminence

#### 1. 2011, 세계적 명문을 향한 질적 도약

- 경희의 오늘: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 16
  -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7위, 세계 245위 16
  - 연구 실적·학계 평가 등 ‘질적 지표’가 순위 상승 주도 16
  - 교육 선진화 계기 마련해준 4대 국책사업 선정 17
- 실천하는 경희: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17
  -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17
  - 지역적·지구적 사회봉사 실천 18

#### 2.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찾아서

- 경희의 미래 설계: “대학다운 미래대학” 20
  - 미래전략: “학문과 평화의 양 날개로 2020년 세계 정상으로” 20
  -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더 나은 공동체, 존중받는 대학” 21
  - 글로벌에미넌스포럼: 21세기 대학의 방향 모색 21

### II. 학문과 평화

#### 1. 교육

-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1년 26
  -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 탐방’ 교육 26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 발간 27
  -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축전 27
- 대형 국책사업 선정 28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29
-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29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주관기관 29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30

#### 줄 이은 명품 강연

- 미원렉처, 프레드 블록(Fred Block) 교수 강연 30
- 석학 초청 특강, 이정식 교수 강연 31
- 특강,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시리즈 32
- 후마니타스칼리지 특강,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강연 32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 683명 발표 33

'삼성 토탈리언트 프로그램(STP)' 협약 체결 33

창의적 체험활동·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 신설 33

원자력공학과, 지식경제부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선정 34

UCLA 교수 초청, 영어강의 노하우 특강 개최 34

'2011 경희HR포럼' 개최 34

중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강화

- 전국 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34
-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35
- 주제 가이드 서비스 제공 35

## 2. 연구

연구 실적 상승 36

대형 연구과제 선정 36

연구지원제도 개선 36

이민재 교수,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지>에 논문 발표 37

박수중 교수, 초신성 발견으로 <네이처>에 논문 게재 37

'2011 경희 Fellow' 8명 선정 38

이충기 교수의 캠블링 연구과제, 교과부 '우수성과' 선정 38

|                                   |    |
|-----------------------------------|----|
| 김상준 교수, 성균관 유교학술원 저술상 수상          | 38 |
| 김대옥 교수, 미래연구정보포럼 '지식창조대상' 수상      | 39 |
|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합동학술대회 개최 | 39 |
| 박호석 교수 연구팀 논문 <ACS 나노>에 게재        | 39 |

### 3. 실천

|  |    |
|--|----|
|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      | 40 |
|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 지정             | 40 |
| '2011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              | 41 |
| 네오르네상스 인턴십 장학 지원                       | 41 |
| 유네스코 워크캠프 파견                           | 41 |
| 미래문명원, UN·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7명 선발            | 42 |
| 2011 Peace BAR Festival '몸과 재앙' 주제로 개최 | 42 |
|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본격적인 활동                 | 43 |
| 지진 피해 일본에 성금 전달                        | 43 |
| 지역주민 대상 컴퓨터 교실 '해피닷컴' 운영               | 43 |
| 경희기록관, 회기동 변천사 담은 역사 사진전 개최            | 44 |
| 사회교육원, 평생학습원 개원                        | 44 |
| 헌혈·장기 기증으로 '생명나눔' 실천                   | 44 |
| 서울캠퍼스 경희봉사단, 봉사 페스티벌 개최                | 44 |
| 최진경·김나혜·정한나 등문 UN 정직원으로 채용             | 45 |
| 벽화 그리기 봉사단 '해피아트' 진행                   | 45 |
| 경희-씨티그룹 NGO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45 |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사랑의 물레 산타'                | 46 |
|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6 |
|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경희, 꿈꾸는 학교'                | 46 |
| 주한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실                  | 46 |
|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장학금 지급                  | 47 |

#### 국내외 의료봉사

- 경희의료원·경희국제의료협력회, 동티모르 의료봉사 및 헌옷 보내기 운동 47
- 경희의료원, 몽골 의료봉사 47
- 경희의료원, 러시아 연해주 나훗카 의료봉사 47
- 경희의료원 해외봉사팀, MBC '코이카의 꿈' 스리랑카 지역 의료봉사 48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국내외 의료봉사 48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변(延邊) 의료봉사 48

#### 4. 의과학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및 장기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50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50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51

의대·의전원 전용 기숙사 건축기금 10억 원 약정 51

경희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51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웰니스센터 개소 52

약학대학 동물실험 시설 국제 인증 52

경희의료원 뇌신경센터 개소 52

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개소 52

감마나이프센터 20주년 맞아 퍼펙션 도입·심포지엄 개최 53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4년 연속 1위 53

한의학 체험단 진행 53

제1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참가 53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독일 교정전문회사 포레스타덴트와 MOU 체결 53

박영국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54

임영진 병원장, ABI 'The Hippocrates Award 2011' 수상 54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통합 허브사이트' 오픈 54

경희의료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54

경희의료원 러시아어 홈페이지 개설 55

|  |    |
|--|----|
| 경희의료원, 주간 뉴스레터 〈굿모닝 경희〉 발송               | 55 |
|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제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년 연속 수상 | 55 |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55 |
|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급증                     | 55 |
| '근거중심의 동서협진 모형 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 56 |
| 심계식 교수, 소아내분비학회 학술연구비 대상 수상              | 56 |
| 박동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56 |
| 유명철 의무부총장, '함춘대상' 수상                     | 57 |
| 박재우 교수, 한방병원 입원 적절성 평가기준 최초 개발           | 57 |
| 강자현 교수, PC기반 녹내장 검사기 개발 및 최고발명상 수상       | 57 |
| 이종웅 박사선사, 한·일의학물리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 57 |

### III. 세계와 경희

|  |    |
|--|----|
| 해외 28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 60 |
| 해외 대학 관계자 초청 교류 확대 논의                    | 60 |
| Global Collaborative 2011 Summer Program | 60 |
| Global Collaborative Abroad              | 61 |
| 복수학위제                                    | 61 |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 61 |
| GKS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 추진                       | 62 |
| 한·일 대학생 교류장학                             | 62 |
| 특별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 62 |
| 동·하계 언어 및 문화연수단 파견                       | 63 |
| 해외 자매대학 연수단 초청                           | 63 |
| 해외 자매대학 서머스쿨 파견                          | 63 |
| 문화·스포츠 교류 연수단 파견                         | 64 |
| 다국가 학생 증가에 따른 국제화                        | 64 |

|                                     |    |
|-------------------------------------|----|
|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 진행               | 64 |
| 교내기관 토폴 시행                          | 64 |
| ‘세계 한인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실시              | 65 |
| ‘G20세대 여름캠퍼스’ 개최                    | 65 |
|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교원 초청 연수’ 진행     | 65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 65 |
|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 운영                   | 66 |
| 제14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66 |

## IV. 창조와 도약

### 1. 행정

|                                    |    |
|------------------------------------|----|
| 국가고객만족도(NCSI) 2위                   | 70 |
| 전문행정 교육체계 확립                       | 70 |
| 재정전략과 거버넌스 구성 및 사업 추진              | 70 |
|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 71 |
| 구성원 만족도 제고 사업 추진                   | 71 |
|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 71 |
| 핵심가치 중심의 대학 위상 강화체계 개선             | 72 |
| O&P Review 개선                      | 72 |
| 자율운영 지원체제 구축                       | 73 |
| 전체직원연찬회 개최 “대학다운 미래대학, 전문행정과 자아실현” | 73 |

### 2. 복지

|                    |    |
|--------------------|----|
| 복지시설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74 |
| 장학 원스톱 서비스 포털 구축   | 74 |

서울캠퍼스,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모자이크장학' 시행 74  
교내식당 개선 방안 연구 75  
복지카드 시행 76

### 3. 연구·교육 인프라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추진 78  
평화의 전당 안전점검 및 진단 시행 78  
무용학부관,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78  
교수학습지원센터, 무인강의 촬영 시스템 구축 79  
경희의료원 잔디광장 조성, 건강의 여신상 제막 79

### 4. 대학문화

목련회의·목련예술제 개최 80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체결 80  
영문 홈페이지 개편 80  
매그놀리아 스토리, 발전기금 20억 원 모금 81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 출범 81  
등록금 공개 토론회 개최 82  
음악대학,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호프만의 이야기' 공연 82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졸업생 37명 기부 약정 83  
'TEDxKyung Hee' 개최 83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장서 100만 권 돌파 기념 문화행사' 개최 83  
해정박물관, '아름다운 세계-고지도'展 개최 84  
해정박물관, '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展 개최 84  
'2011 경희 외국인 한마당' 개최 84  
'폴란드 현대 판화전' 개최 84

## 5. 전진하는 경희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대학

- 2007년 이후 259계단 상승, 평가 대상 대학 중 이례적인 성장 86
- 2011 QS 세계대학평가 245위, 국내 대학 6위 86
- 2011 QS 아시아대학평가 42위, 국내 대학 7위 86

### 국내 대학평가 상위권 다져

-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7위, 국제화 부문 공동 1위 87
- 2011 중앙일보 학과평가, 경제·사학·영미어학(국제)·철학과 '최우수' 선정 87
- 2011 의학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88

### 체육부 연이은 선전

- 2011 대학농구리그 통합우승 88
- 나상욱 학생, 211번 도전 끝 감동의 우승 89
- 야구부, 2년 만에 경기도협회장기 대학야구 패권 89
- 정다소미 학생, 양궁 월드컵 대회 개인전·단체전 2관왕 89
- 핸드볼부, 제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남자대학부 정상 89

### MBC 다큐멘터리 프라임,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양교육 보도 90

### 학생 수상 소식

- 오승헌 학생,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90
- 진병철 학생, 제11회 헬라스 국제무용콩쿠르 1위 91
- 배규진 학생, 제9회 농심 면요리왕 선발대회 대상 91
- 이다솜·최유리·이경섭 학생, 제15회 대학생주택건축대전 대상 91
- 김유희 학생 외 4인, 제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대상 92
- 강동원 학생, 제4회 전국 학생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92

### 호텔관광대 재학생·동문 '김치버스' 세계 투어 92

### 제임스 후퍼 학생,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무동력 완주 92

### 이동엽 학생,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 의장 선출 93

### 동문 수상 소식

- 손보미 동문, 2011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93

- 고광현 동문, 제11회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93
- 이성부·양역관·김난주 동문, 제24회 경희문학상 수상 93

#### 총동문회 소식

- 총동문회, 정기대의원총회 94
- 총동문회, 도봉산 등산대회 94
- 총동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94
- 제2회 경희가족 바둑축제 94
-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95
- 2011 경희인의 밤 95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98
- 총장 연설문 100
- 통계로 본 경희 2011 122
- 경희대학교 기구표 123

## 창조의 여정, 또 다른 학술문화를 열며<sup>※</sup>



지난 2월 타계하신 설립자 영전에 경희의 깊은 애도를 담아 삼가 명복을 기원합니다.

10여 년 전 개교 50주년을 맞아 설립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 죽더라도 세계적인 대학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그 뜻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계적인 대학.” 무엇을 뜻하는가. 부분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의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명문의 조건일 것입니다. 대학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지향하는 대학(大學), 큰 학문의 길을 여는 것이 세계 명문의 근간이 아닐까 합니다.

경희는 설립 이래 늘 이 가치와 함께 해왔습니다. 학문의 미래를 열어가며, 인간과 자연에 관한 다양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인류와 문명의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수년, 경희는 이와 같은 전통을 더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희는 학술역량을 심화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 선정과 함께 미래 고등교육을 선도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같은 해 3월 설립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그간 대학사회가 소홀히 해온 기초 교양학문과 시민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연구 분야도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인문사회, 기초과학, 공학, 의과학,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고르고 빠른 도약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희의 국내외 위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경희의 노력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공적 실천입니다. 지난 60여 년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해온 경희는 “전통적 상아탑”을 넘어 지식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 대학의 인류사적(人類史的) 소임을 모색해왔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의 국경을 넘나드는 사회봉사와 의료봉사, 지난해 발족한 지구사회봉사단 GSC(Global Service Corps)는 이와 같은 경희의 열망과 포부를 표현합니다.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맞아, UN 본부와 평화의 전당을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한 경희-UNA(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국제회의 “Give Peace Another Chance”도 대학의 공적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경희의 인류평화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대회 모두(冒頭) 발언은 경희인 모두의 큰 보람으로 다가섰습니다.

지자체 성취를 배경으로, 경희는 또 다른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여는

<sup>※</sup> 편집자 주: <목련리포트>는 4년 전부터 경희대학교가 실시해온 ‘총장 연례보고서’입니다. 경희와 대학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염원하며, 발간 전년 시행된 주요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과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2 목련리포트> 발간사는 지난 3월 23일 개최된 2012학년도 전체교수회의 총장 인사말(요약 수정본)을 게재합니다. 이 인사말은 지난 1년간 성취를 돌아보며, 2012년 경희가 함께 열어갈 새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 “세계적인 대학”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큰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현대 대학의 역사, 그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갈 명문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우리는 “대전환”이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염원하며, 우리가 함께 창조해야 할 경희의 존재감, 대학사회의 새로운 책무를 물었습니다. 두 과제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는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Global Eminence 2020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희는 그간 추진해온 44개 단과대학, 대학원의 자율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새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미래과학, 인류문명, 바이오헬스, 문화예술, 사회체육 분야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창조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새 가능성을 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추진된 <미래협약>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연말 목련회의 석상에서 경희는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 경희가 추구할 가치, 상호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간 “학문의 전당”, “평화의 전당”을 지향해온 경희의 역사에 합류해 왔습니다. 학문의 전당으로, 큰 학문의 길을 열어가고, 큰 학문의 공적 실천을 도모하는 전통에 참여했습니다. 전당의 사전적 의미는 ‘집’, 혹은 ‘곳’입니다. 크고 넓은 집, 연구와 학습, 실천의 권위가 생동하는 곳을 뜻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당, 혹은 요람을 지향하는 경희의 역사와 함께, 21세기가 요청하는 대학의 새 모습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인간, 자연, 우주, 문명, 공동체의 각종 현안을 탐구하며, 지속가능한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었으면 합니다.

올해 경희는 교수진 한 분 한 분이 21세기 학문과 인류의 내일을 열어갈 석학, 대가, 거장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치열한 학문의 즐거움, 그 학문을 전수하는 교육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학술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경희의 교정에서 학문과 인생을 깊이 있게 마주하며, 더 나은 자신과 사회, 인류의 내일을 성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대학은 이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1세기 대학다운 미래대학이 여기 한국, 경희에서 태동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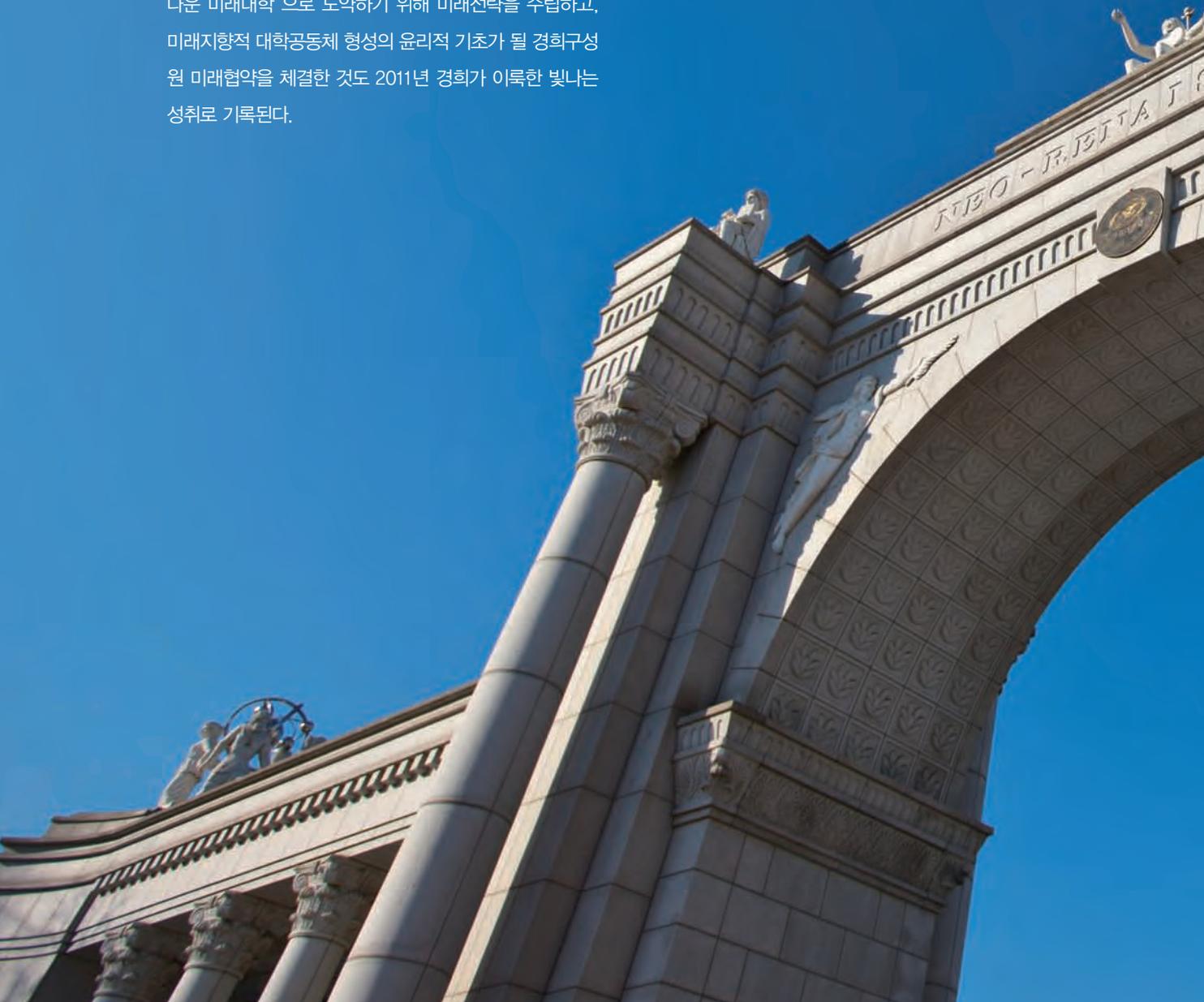
우리 모두의 꿈인 세계적인 대학. 그 길에 이르는 ‘또 다른 창조의 여정’을 그간의 성취 위에 놓았으면 합니다. 대학, 그 모든 것의 중추인 학문세계, 학술문화의 선도적 미래를 함께 열었으면 합니다.

2012년 4월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 Towards Global Eminence

2011년 경희는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5위, 세계 대학 245위에 오르는 등의 표면적 성과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 수준과 연구 역량 등 질적 평가 요소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2011년 경희는 양적·질적 동반 성장을 달성했다. 또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를 뉴욕 UN본부와 서울캠퍼스에서 동시 개최해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 대학공동체 형성의 윤리적 기초가 될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을 체결한 것도 2011년 경희가 이룩한 빛나는 성취로 기록된다.





## 2011, 세계적 명문을 향한 질적 도약

### 경희의 오늘 :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

2011년 경희는 ‘담대한 꿈’의 실현에 나섰다. 2011년을 시작하며 경희는 학술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하는 동시에,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학생·교수·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23만 동문은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노력했다. 2011년 경희는 국내 정상권 대학의 자리를 지켰으며, 구성원 모두의 꿈인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국내 7위, 세계 245위

2011년 국내외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한 각종 평가 결과들은 지난 5년 동안 축적해온 경희의 저력과 미래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줬다.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대는 2년 연속으로 국내 7위(종합대학 5위)를 유지했다. 주목할 것은 공동 5위를 차지한 고려대·성균관대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87쪽 참조)

한편,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전문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 결과는 경희의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2011년 경희대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45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200위권에 진입했다. 2010년의 345위에서 무려 100계단이나 상승했다. (86쪽 참조)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484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경희의 순위는 239계단 뛰어올랐다. 상승률 2위의 미국 예시바대학교(Yeshiva University)는 같은 기간 401위에서 252위로 149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경희대는 전년도에 비해 20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42위를 차지했다.

### 연구 실적·학계 평가 등 ‘질적 지표’가 순위 상승 주도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들 외부 평가에서 질적인 요소가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1년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200위 안에 속한 국내 35개 대학의 SCI급 논문 증가율은 평균 32.9%였다. 이에 반해 경희대는 그 3배가 넘는 109%가 증가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 학자들이 경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QS 세계대학평가 항목 중 ‘학계 평가’가 가중치가 40%로 가장 높다. 3만 3,744명의 학자를 대상으로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꼽아달라’는 QS의 설문조사 결과, 경희대는 2010년보다 185계단 상승한 231위를 차지했다. 특히, 생명과학·의학 분야는 400위에서 109위로 순위가 오름에 ‘의과학 경희’의 전통을 확인시켰다. 이와 관련, 경희대학교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동서협진센터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원은 ‘한국산업브랜드파워(KBPI)’ 4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도 경희의 연구 역량을 재확인시켰다. 경희대는 계열 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3위,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 수 6위,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  
게재 수 6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가 대학평가와 함께 실시한 학과평가에서 경희대는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가 ‘최상  
위’ 등급에 올랐다. 경제학, 사학, 영미어학(국제), 철학과 등이 영예를 차지했다. 인문·사회계열  
9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평가에서 4개 학과가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전국 123개 종합대  
학 중 경희대가 유일하다. 한편,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대는 한국외대와 함께 국제화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 교육 선진화 계기 마련해준 4대 국책사업 선정

2011년 경희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서도 괄목할 만한 도약을 이뤘다. QS 세계대학평가의 ‘졸업  
생 평판도’ 부문에서 경희대는 2010년보다 289계단 상승한 247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전 세계  
기업인들이 경희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희대 졸업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1년 3월 설립된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의 혁신적 교양교육은 앞으로 경희  
의 졸업생 평판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명문대학들이 그동안 실용적 전공교  
육에 치중해온 점을 반성하며, 전인적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업체들도 전  
공지식과 통섭적 교양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배우는 대학’ 경희는 2011년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  
기를 맞았다. 경희대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 4대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재학  
생 1만 명 이상인 수도권 대학 중에서 4개 사업을 모두 유치한 대학은 경희대가 유일하다. 앞으  
로 4년 동안 경희대는 교육 선진화에 총 3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실천하는 경희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2011년 5월 경희대는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으로 지정됐다. 1981년 UN이 세계평  
화의 날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희는 1982년부터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대안적 미래문명을 모색해왔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 5월에는  
세계시민포럼(WCF)과 세계시민청년포럼(WCYF)을 창립했다. 이 같은 학술 활동이 유네스코 석  
좌기관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0쪽 참조)

####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해온 경희의 노력은 2011

년 9월 15일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로 결실을 맺었다. 반기문 사무총장 주도하에 설립된 UNAI가 경희대를 공동 주최자로 선정한 것은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회의 주제는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였다. 뉴욕 UN본부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동시 개최된 이날 회의는 UN 웹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뉴욕 회의장에서 조인원 총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평화의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면서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맞아, 세계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인원 총장의 '뉴욕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희는 UNAI와 본격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앞으로 경희의 지구적 봉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40쪽 참조)

### 지역적·지구적 사회봉사 실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은 경희의 오랜 전통이자 학풍이다. 2011년에도 경희 구성원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경희는 긴급 구호단을 조직하고 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에 앞서, 1월에는 아프리카 케냐 빈민촌 아동을 위해 '지라니 아트 스쿨' 건립을 위한 공연과 모금운동을 벌였다. 경희의 의료기관이 주축이 된 국제적 봉사는 1년 내내 지속됐다. 한편,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동대문구 평생교육원 개설 등은 지역사회에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학술적 공헌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물레 산타' 등도 해마다 거르지 않는 경희의 봉사활동 중 하나다. 경희는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적·지구적 사회공헌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때로는 개별 기구 단위로 전개돼 효과 면에서 역량이 분산되는 측면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9월 경희학원 전체 차원의 봉사활동을 기획·추진하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을 결성한 바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희는 GSC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2011 뉴욕 제안'과 더불어, GSC 활동의 본격화는 경희의 지구적 봉사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은 "경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임을 확인하는 해였다.



##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찾아서

### 경희의 미래 설계 : “대학다운 미래대학”

2011년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먼저, 경희가 2020년까지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 전략 방향을 수립했다.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초안을 작성하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1년 7월에는 미국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프린스턴대학교 존 아이켄베리 등 세계 석학들이 참가하는 글로벌에미넌스포럼(Global Eminence Forum)을 개최했다.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주제로, 21세기 대학이 처한 현실과 ‘미래대학’이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글로벌에미넌스포럼 내용은 <새로운 명문의 조건>이라는 책자로 발간돼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냈다. 2011년에 거둔 또 다른 성과 중 하나는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이하 경희미래협약) 체결이었다. 경희미래협약은 미래지향적 대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경희공동체의 ‘윤리 헌장’이다. 2011년 12월 21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송년회 ‘Magnolia 2011’에서 교수 대표, 학생 대표, 직원 대표, 학교 대표들과 조인원 총장은 경희미래협약에 서명했다.



### 미래전략 : “학문과 평화의 양 날개로 2020년 세계 정상으로”

지난 연말의 송년회 ‘Magnolia 2011’ 행사에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방향이 대내외에 공개됐다. 미래전략이 구상하고 있는 10년 후 경희의 모습은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세계 정상 대학”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전략은 두 가지 지향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교육·연구·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을 구현해 국제적 자부심(International Pride)을 떨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사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해 국민적 신뢰(National Trust)를 쌓는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에 대한 공식 논의는 2011년 2월 23일~24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2011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처음 이뤄졌다. 그 전에도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개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부터 전면 실시한 자율운영제도를 정착시켜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 등 자율운영기관들이 개별적 성취를 이루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토대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다. 2011년의 미래전략 수립 논의는 경희의 자율운영제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경희의 미래전략은 각 자율운영기관들의 창조적 역량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계획’이 아닌 ‘전략’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계획’은 중앙집중적 ‘톱다운(top-down) 방식’의 프로세스를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발전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실행계획)까지 포함한다. 이와 달리 ‘미래전략’은 거교적 차원의 목표와 전략만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은 자율운영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경희는 구속력이 강한 ‘계획’보다는 소통과 참여 속에 구성원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했다. 지난 1년 동안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된 미래전략은 올해 하반기에 공포된다.



###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 “더 나은 공동체, 존중받는 대학”

경희미래협약은 전 구성원이 비전과 목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희공동체의 ‘윤리 헌장’이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 지침’이다. 또한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정신으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지구시민적 약속’이다. 경희미래협약의 비전은 “더 나은 공동체, 존중받는 대학”이다.

경희의 미래협약 정신은 60여 년 전에 선포된 창학이념과 교훈에 이미 내포돼 있다. 교시 ‘문화 세계의 창조’, 그리고 교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는 결국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더 나은 공동체,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경희미래협약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세기 한국의 대학사회 현실은 경희의 이상이 뿌리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정치적 혼란과 민주화의 더딘 진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등이 한국 사회 전반의 정신문화적 발전을 지체시켰다. 그런 뜻에서, 경희미래협약 체결은 경희라는 대학공동체의 정신문화 혁신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희미래협약은 5가지의 핵심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다음은 5대 핵심가치의 요약이다.

1. 상호연관성: 대학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소통·공감·배려의 정신으로 상호연관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지구사회로 이를 확대한다.
2. 총체성과 안전성: 대학은 구성원이 저마다 온전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총체적 삶의 현장’이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
3. 배려와 존중: 대학은 ‘평등의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경희 구성원은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생 능력을 갖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섬김과 나눔의 세계를 지향한다.
4. 투명성과 윤리성: 교수·학생·직원·대학 등 경희의 모든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실천해 경희가 존경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공공성: ‘학문과 평화’의 경희 구성원은 진리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공적 활동을 확대하며 실천적 지성으로 거듭난다.

### 글로벌에미넌스포럼 : 21세기 대학의 방향 모색

2011년 7월 16일~17일 강원도 원주에서 ‘글로벌에미넌스포럼 2011’을 개최했다. 글로벌에미넌스포럼(Global Eminence Forum)은 급변하는 21세기 환경에서 지구적·지역적 메가트렌드를 짚어내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철학적 토대와 창조적 담론을 제공하는 포럼이다.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주제로 한 글로벌에미넌스포럼은 경희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었다.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석좌교수, 프린스턴대학교 존 아이켄베리 석좌



교수 등 해외 석학과 연세대 김용학 교수(사회학), 고려대 염재호 교수(행정학) 등 타 대학 구성원, 그리고 이동욱 경희학원 이사가 참석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희의 모습을 들려줬다. 전문가의 눈으로 경희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회의 형식면에서도 현실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제목 'Towards Global Eminence: A Brainstorm'이 뜻하는 바대로, 상상력의 끝까지 도달해보려는 활기찬 브레인스토밍이 이를 동안 이어졌다.

포럼 참석자 전원은 지난 63년 동안, 특히 최근 5년간 경희가 이룩한 경이로운 성취에 찬사를 보냈다. 국내 대학사회의 교양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에 많은 지지를 보냈다. 21세기 대학사회의 메가트렌드는 실용적 전공교육과 폭넓은 교양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 명문대학들이 대학의 지역적·지구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는 경희의 교육 방침이 '새로운 명문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학문 간 융복합이었다. 융복합은 경희는 물론이고 21세기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희의 미래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글로벌에미넌스포럼의 토론 내용은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됐다.

2011년 경희는 지난 5년 동안 축적해온 성과 위에서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고,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떼어놓았다.





# 학문과 평화

2011년 경희가 성취한 학술적 성과는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교양교육 혁신을 선언하며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출범하자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다.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경희는 전 세계 학계로부터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4대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 중에서 경희대가 유일하다. 개원 40주년과 개원 5주년을 맞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으로 선정된 경희대의 거교적 사회공헌기구 경희 지구사회봉사단(GSC)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 교육

###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 1년



대학사회의 교양교육을 혁신하는 경희대학교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가 2011년 3월 출범한 이후, 두 학기 교육을 마쳤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 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는 탄탄한 교양의 기초 위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를 향해 열린 시야를 갖춘 새로운 교양인(Humanitas)이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며 지구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교양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좌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통섭적 교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1학기에는 총 1,299강좌(서울캠퍼스 647강좌, 국제캠퍼스 652강좌), 2학기에는 총 1,260강좌(서울캠퍼스 613강좌, 국제캠퍼스 647강좌)가 서울과 국제캠퍼스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중핵교과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기초교과인 '시민교육'과 '글쓰기'다. 중핵교과인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은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빠짐없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핵심 교양과목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은 "대학에 들어와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주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말한다. 그 같은 교육철학에 따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돼 신입생은 1학기에 '인간의 가치 탐색'을, 2학기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수강해야 한다.

시민교육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 학점을 의무화한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경희의 전통과 미래지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교과목이다. 학문과 평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구현하는 것이 경희의 교육철학이자 미래비전이기 때문이다.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도 그동안 입시 때문에 차분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삶에 관한 이야기, 즉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써보도록 가르쳤다.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야 확보, 지구공동체 구성원이 갖춰야 할 시민의식 실천,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훈련 등 후마니타스칼리지는 2011년 한 해 동안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첫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쌓어나가고 있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 탐방' 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는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이스탄불(다문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탄불 프로젝트는 여러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 탐방 기회를 제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을 계기로 처음 마련됐다.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2011년 8월과 2012년 1월, 각각 터키 이스탄불과 일본 규슈 일대를 답사했다. 하계방학 때는 10명의 학생, 동계방학 때는 20명의 학생에게 참여 기



회가 주어졌다. 이스탄불 프로젝트의 과제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사진 자료화, 보고서 제출이다.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진·동영상 촬영 기술을 습득하고, 탐방지의 역사를 공부했다. 또한 스스로 관심 분야를 설정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연구 방법론도 체득했다.

도정일 대학장은 “근대 문명은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환경문제, 빈부 격차, 불평등 등의 한계도 공존한다”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탄불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 방침이기도 하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 발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을 지향하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재가 발간됐다. 중핵교과의 읽기 교재는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의 고전적 저작물 중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교양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글들을 엮었다. 편집 책임자인 도정일 대학장은 “이 책은 역사도, 문학도, 철학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교재는 <인간의 가치 탐색-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 <우리가 사는 세계-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II> 2권으로 구성됐다. 1권 <인간의 가치 탐색>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오랫동안 어떤 가치를 탐색해왔는지 이해하는 데 주력했다면, 2권은 16세기부터 지금에 이르는 500년 동안 근현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됐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주력한 1권의 연장선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다.

기초교과인 글쓰기 과목의 교재 <나를 위한 글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2011학년도 1학기에 발간된 시민교육의 읽기 교재 <제2의 탄생>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마인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심, 인류 사회를 위한 봉사와 연대 정신 등 현대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제2의 탄생>은 2011학년도 2학기에 새롭게 출간, 시민이란 누구인지, 한국 현대사와 시민민주주의, 국가·시장·자유, 현대 사회의 갈등, 공존의 윤리, 세계시민과 청년 등에 관해 소개했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축전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과 교수 1,250여 명이 참여한 예술축전 ‘Art·人·후마니타스: 아~이들의 열정과 도전!’이 2011년 12월 5일부터 이틀간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예술축전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업의 결실이다. 26개 예술 교과목 수강생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



한 흔적들을 연극, 노래, 악기 연주, 춤, 사물놀이, 판소리 등 공연과 사진, 디자인 작품에 담았  
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예술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거듭나 새로운  
문명 속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스스로 타진하고 발견하며 지구적 존엄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4시간 동안 펼쳐진 공연은 ‘공연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 수강생이 직접 연  
출하고 연기한 연극으로 시작했다. 공연 중, 우정출연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교과 수  
강생들이 제작한 ‘나 飛上 하다’ 영상이 선보였다. 영상은 공감의 장, 소통의 장, 연대의 장, 신  
뢰의 장, 공존의 장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공감의 장에서는 4명의 학생이 현장활동(사회봉  
사) 경험을 소개했다. 이들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된 사연과 공동  
체적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디지털사진 촬영 기법, 영화 속 그림 읽기, 매체와 현대 예술, 생활염색 디자인, 플로랄 디자인  
실기, 프레스플라워 아트 등의 예술교과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작품은 예술축전 기간 동안 평  
화의 전당 로비에 전시됐다.

예술축전은 경희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교양교육을 통해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  
한 공동체 성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예술교과에  
서 시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 대형 국책사업 선정

2011년 5월, 그동안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꾸준히 모색해온 경희대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공인’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 교육과  
학기술부가 지원하는 4개의 대형 국책사업에 잇달아 선정된 것이다. 4개 국책사업을 통해 지원  
받게 될 사업비는 총 265억 원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엄정한 기준에 따라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  
등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ACE 지원사업’ 그리고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진행된다.

‘TLO 지원사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이 창출한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등 실질적 사업으  
로 연결, 기술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학협력의 질적 성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적  
국책사업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입시 위주의 현행 중등교육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대학을 장려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 재학생 1만 명 이상인 대학 중 4개 사업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경희대학교가 유일  
하다. 지난 5년 동안 교육·연구·실천의 조화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지향적 혁신 노력이 구체적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dvanced College of Education, ACE) 지원사업’에서 경희대학교가 이 사업에 신청한 수도권 11개 종합대학(재학생 1만 명 이상)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ACE 지원사업은 국내 학부교육의 선진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희대학교가 ACE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새롭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적 성찰과 교육철학, 그리고 미래지향적 변화와 창조 노력을 압축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ACE 지원사업 선정으로 1차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전공 간의 융복합 교육,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지구사회 봉사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정받게 된 동력으로 알려졌다. ACE 지원사업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이며, 경희대는 연간 30억 원, 총 1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2011년 5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모두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희대학교는 이미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4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최우수 대학, 사업계획 컨설팅 최우수 대학에 각각 선정돼 2억 6,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희대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015년까지 4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융합학습자 대상 장학금 지원,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학습 커뮤니티, 경희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영예학생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등 6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창의적 교육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ACE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경희대학교는 대학 자체 예산 120억 원을 투입, 총 360억 원을 교육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에 대한 경희의 비전과 투자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이 2011년 5월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경희대학교가 TLO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06년 경희대학교는 ‘1차 선도 TLO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대학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5년 동안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연구 수월성 제고 노력으로 특

히 출원 및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기술이전 실적도 급성장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11년 '2차 선도 TLO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승격'했다. 다시 말해, 경희의 연구역량이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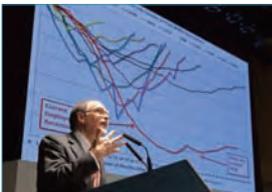
TLO 지원사업 기간은 5년이며, 경희대학교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경희대학교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연구개발(R&D) 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 사업화로 연구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2011년 경희대학교가 이룩한 또 하나의 쾌거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도대학 선정이다. 2007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경희대학교는 '4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환경·잠재력·창의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적 입시제도다. 2011년의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으로 유치한 사업비는 약 13억 3,000만 원이다.

경희대학교는 경희의 인재상인 '실천적 세계인, 실용적 전문인, 창조적 문화인'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대입전형연구센터'도 신설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 '선발'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 '선발·육성·졸업 이후'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계획이다.

### 줄 이은 명품 강연



### 미원렉처, 프레드 블록(Fred Block) 교수 강연

2011년 9월 26일 서울캠퍼스에서 '지구적 근대, 그 위기의 기원(Origins of the Current Crisis of Global Modernity)'을 주제로 '2011 미원렉처(Miwon Lecture)'가 열렸다. 초청 강사는 세계적인 사회학자 프레드 블록(Fred Block)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였다. 이날 강연에는 교직원과 학생, 동문, 일반 참가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함의를 꾸준히 모색하며 행동하는 참다운 학자"라고 블록 교수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미원렉처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떤 학문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서 블록 교수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지구적 근대성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원적 개념들에 갇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권기봉 평화복지대학원장 사회로, 프레드 블록 교수, 후



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수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정진영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미원렉처는 세계적 석학, 국제사회 지도자, 시민사회 실천가들을 초청, 학생들이 경희의 역사와 전통 위에서 미래 지구시민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특강 프로그램이다. 프레드 블록 교수에 앞서 2009년 미국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Paul M. Kennedy) 석좌교수, 2010년 고이치로 마츠우라(Koichiro Matsuur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초청됐다. 미원렉처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내용은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 석학 초청 특강, 이정식 교수 강연

‘석학 초청 특강’의 첫 연사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 겸 경희대학교 석좌교수(Eminent Scholar)인 이정식 교수를 초청, 2011년 11월 9일부터 4주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이정식 교수는 21세기의 눈으로 해방 후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국사를 국제관계라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후학들에게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줬다. 특히, 제2강 ‘중국 내전이 한반도 분단에 중지부를 찍었다’는 학계에 처음 발표되는 내용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첫날 강연에 앞서 조인원 총장은 학생 청중들에게 “여러분의 세대는 단지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어진 책임을 즐기면서 사회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 특강이 세계적 석학의 큰 생각과 삶의 체취를 느끼면서 자기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주 동안의 강연에서 이정식 교수는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국제관계를 두루 살피는 넓은 시야로 분단 원인을 규명하고, 역사의 긴 안목에서 참혹했던 6·25전쟁의 현재적 의미를 재해석했다. ‘중국 내전이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새 학설을 제시할 때는 “50년 동안 한국 해방 후사를 연구해왔는데도 ‘머리가 나빠서’ 뒤늦게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며 학문의 길에 끝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학자로서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탐정처럼 해답을 찾아온 탐색 과정을 소개하면서 학문하는 방법을 후학들에게 일깨웠다. 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 학문 탐구의 과정이자 학문하는 즐거움”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강연이 끝난 뒤에는 서울대학교 이인호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이주영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김학준 이사장,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 후마니타스칼리지 허동현 교수가 패널로 참가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학문의 즐거움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며 경희대학교의 학술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 특강,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시리즈

21세기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대학교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특강을 기획했다. 이 특강은 세계적 학술기관의 리더를 초청, 강연과 대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해당 학술기관이 축적해온 대학 운영 철학과 비전, 거버넌스, 발전전략 등을 공유하는 학술행사다. 2011년부터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수립 중인 경희대학교는 특강을 통해 전 세계 대학사회의 미래 모색을 참고하면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개념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11년 10월 18일 첫 강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박노희 차과대학장이 초청됐다. 박노희 대학장은 "21세기 사회변화의 핵심 동력은 '지식(Knowledge)'이며, 대학은 지식 창조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미래지향적 교육관이다.

2011년 11월 4일 열린 두 번째 강연에서는 미국 예일대학교 스코트 스트로벨(Scott A. Strobel) 부총장이 발전전략 추진 경험과 예일대학교 웨스트캠퍼스의 세 가지 전략적 원칙을 들려줬다.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스트로벨 부총장은 "예일이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월성을 지닌 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연계협력의 강화다. 소규모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통해 교육·연구의 수월성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 대담함을 잃지 않고, 담대한 정신력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 휴머니타스칼리지 특강,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강연

'2011 휴머니타스 석학 초청 강연'이 2011년 11월 28일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노트르담대학 프레드 달마이어 정치학·철학 석좌교수는 '인간의 인간화: 글로벌 시대에 인문학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에서 달마이어 교수가 던진 화두는 '인간을 인간답게(Humanizing Humanity)'였다.

그는 인문학이 경시되고 있는 오늘날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만 하는 지극적 의미를 고찰했다. 달마이어 교수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짐에 따라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조용한 위기'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응기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인간화를 위해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투쟁의 주요 자원으로 꼽은 아힘사(Ahimsa, 비폭력)와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진리와 선의 추구)를 언급했다.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는 독일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의 현상학-해석학 전통을 물려받은 현존하는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2011 Peace BAR Festival' 기조강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 683명 발표

지난 2011년 1년 동안 실시해온 2012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683명(서울 358명, 국제 325명)이 합격했다. 세부 전형별로는 네오르네상스 492명(서울 252명, 국제 240명), 고교 교육과정 연계 100명(서울 50명, 국제 50명), 사회 공헌·역경 극복 대상자 65명(서울 30명, 국제 35명), 창의적 체험 활동 26명(서울캠퍼스만 해당)이다.

지난해 선발된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들은 전형별 인재상에 따라 차별화된 역량과 재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도에 신설된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을 통해서도 학업 성적이 낮지만 탁월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경희의 인재상인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에 부합하면서 다양성을 갖춘 학생들이 합격점을 받았으며, '사회 공헌·역경 극복 대상자 전형'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예비 경희인으로 선발됐다.

경희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 학생의 잠재력과 가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통신비, 기숙사비 등 학업장려금까지 지급하는 '학생 맞춤형 장학(Need-based Scholarship)'을 운영하고 있다. 2012학년도 '학생 맞춤형 장학' 수혜자는 2011학년도에 비해 10명이 증가해 총 3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STP) 협약 체결



전자정보대학이 2011년 3월 산·학·연 협력 실무교육을 확대해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Samsung Talent Program, STP)'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희대학교는 '삼성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삼성전자는 STP 과정 수료생에게 인턴 채용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6년까지 경희대학교에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STP 협약 체결은 학생들이 기업 실무와 긴밀하게 연결된 경험을 축적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교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 상승으로 경희대학교의 대외적 평판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 신설

그동안 경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왔으며, 2011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2012학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과 함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양질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학 최초로 고등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을 신설했다. 두 전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을 전형에 반영해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전형'은 고등학교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성과 잠재력을 키워온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이다. '고교 교육과정 연계 전형'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교과부 지정 사업 중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고등학교에 한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했다.

### 원자력공학과, 지식경제부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선정

원자력공학과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공학과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식경제부로부터 총 16억 원을 지원받아 에너지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원자력공학과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원자력 시스템 설계기술 산업체 트랙' 교과과정을 개설해 기초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고, 산업체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 및 정책을 재교육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인력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 미래의 에너지 선도기술 및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융복합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적 인력 교류를 확대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원자력 시스템 설계기술 산업체 트랙'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원자력공학과와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핵공학 개론, 방사선 계측이론, 노심 설계 등 12개 과목과 연수활동을 선택해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트랙 이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UCLA 교수 초청, 영어강의 노하우 특강 개최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1년 3월 16일 서울캠퍼스에서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 노하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경희대학교 교원의 영어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물리학과 가츠시 아리사카(Katushi Arisaka) 교수는 비영어권 출신으로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해 UCLA에서 교육상(Teaching Award)을 수상했다.

아리사카 교수는 "영어강의의 성공 여부는 영어실력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에 달려있다"며 가르치는 것을 즐기, 교수의 열정을 학생들에게 전염시키기, 교수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등을 영어강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 '2011 경희HR포럼' 개최

'2011 경희HR포럼'이 지난해 6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HR포럼은 기업의 경험과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 교류협력 프로그램이다.

'후마니타스 교육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한 경희HR포럼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은 고슴도치, 여우, 두더지 등 세 동물의 특성을 비유하며 경희의 인재 교육 방향을 설명했다. 도정일 대학장은 "지금 시대에는 박학다식한 여우와 원칙주의자인 고슴도치 외에도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외딴의 상징 '두더지'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교육을 통해 세 가지 장점을 모두 지닌 이상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강화

#### 전국 우수 대학도서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 주관하는 '2010 대학도서관 평가'에서 서울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이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활성화 분야 우수도서관(대규모



부문)으로 선정돼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은 외국인 열람실 개설,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개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모두'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2010년 11월 회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회기동 주민 경희대 중앙도서관 이용에 대한 합의'를 체결, 2011년 한 해 동안 회기동 주민이 중앙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최대 인원은 100명이다.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18세 이상의 회기동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을 이용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독서를 장려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희 독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소속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팀당 7~10명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한 뒤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선발되면, 도서관은 희망도서를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매달 1권, 학기당 6권씩 지원한다. 구성원은 독서 및 토론 후 독서후기를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khureadingbook>)에 게재해야 한다.

###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자료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중앙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도서관 이용자는 500여 개의 협력도서관 및 타기관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어 대출 가능한 단행본이 늘어났다. 1인 3권까지 15일(1회 연장 가능)간 대출할 수 있으며, 개인 계정을 통해 RISS 홈페이지([www.riss.kr](http://www.riss.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출 도서는 택배를 통해 도서관 간 대출·반납이 이뤄지며, 중앙도서관 담당자를 통한 수령이 가능하다. 단, 택배 왕복비 5,100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 주제 가이드 서비스 제공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주제 가이드(Subject Guid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전공 분야의 참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단행본, 학회정보 등 전공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당 전공 분야 가이드 외에 연구동향 정보, 글쓰기, 참고문헌 작성 등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제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2012년 3월부터는 홈페이지(<http://libguides.khu.ac.kr>) 서비스와 함께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된 Course Guide, 학위논문 작성법, 통계분석 가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 연구

### 연구 실적 상승

최근 5년간 경희는 연구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연구 수월성을 확보해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는 연구역량 면에서 양과 질의 동반 성장을 달성했다. 연구 분야 순위는 2007년 19위에서 2011년에는 9위로 상승했다. 또한 2011년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200위 안에 속한 국내 35개 대학의 SCI급 논문 증가율이 평균 32.9%인 데 반해 경희대학교는 그 3배가 넘는 109% 증가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연구 분위기를 고취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양적 지표에서,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 수는 2007년 0.75편에서 2011년 1.46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 논문 게재 수는 0.04편에서 0.24편으로,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게재 수는 0.73편에서 1.53편으로 각각 늘어났다. 지적재산권 등록도 183점에서 740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의 질적 성장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교수당 SCI, SSCI, A&HCI 피인용 수는 1.76에서 4.87로 늘어났다. 3년 누적 기술이전 수입액도 4억 8,800만 원에서 2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대형 연구과제 선정



경희의 연구센터(팀)이 2011년 대형 연구과제에 잇달아 선정됐다.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연구사업단(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4개의 연구과제를 통해 지원받게 될 연구비는 총 137억 원에 달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MRC)을 수주한 '활성산소 기초의과학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의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2018년까지 약 69억 원을 지원받아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조절기전과 산화스트레스 연관 질환의 발병기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박한국 교수팀은 연구과제 '천연물 기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고기능성 생체접착제의 개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경영대학 김재경 교수팀은 '관객 반응에 대응하는 진화형 인터랙티브 전시통합 제어기술 개발' 과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을 수주했다. 이들 연구팀은 2014년까지 각각 약 2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사업단(과제명: 잉어 수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선정됨으로써 약 26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연구비는 2014년까지 지원된다.

### 연구지원제도 개선

연구하는 학풍을 조성해온 경희대학교는 2011년 2월 학술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비연구비 지원사업(안)을 결정했다.

이 지원사업(안)은 교비연구비 지원제도와 교비연구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신진연구과제는 예능계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신진교수에 한해 교비연구 결과물을 논문이 아닌 공연 및 전시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융·복합연구



지원사업은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장려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 수월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비연구과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차등화했다. 영향력 지수 5 이상 또는 JCR 기준에 따른 분야별 상위 10%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고, 영향력 지수 8 이상 또는 JCR 기준에 따른 분야별 상위 5%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논문 게재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비연구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논문 질 제고를 위한 논문 게재 장려금 지급 기준과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활동비를 상향 조정했다. 영향력 지수에 따른 차등이 강화돼 영향력 지수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SSCI와 A&HCI 장려금도 각각 100만 원씩 더 지급된다.

**이민재 교수,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지〉에  
 논문 발표**



2011년 11월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이민재 교수가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을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지(Nature Structural & Molecu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뇌질환 극복에 도움이 될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시스템(Ubiquitin-Proteasome System, UPS)의 새로운 기능과 구조 메커니즘이 규명됐다.

이민재 교수의 논문은 퇴행성 뇌질환 유발 분자인 독성 단백질 제거 방법을 제시했다. 독성 단백질과 관련된 질환은 퇴행성 뇌질환 이외에도 백내장·암 등 다양해 이번 연구는 다른 질병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 백혈병과 같은 골수종암 치료제를 개발한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바 있으나, 단백질 분해를 촉진 또는 제거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종 교수,  
 초신성 발견으로  
 〈네이처〉에 논문 게재**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박수종 교수가 새로운 형태의 우주 폭발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 결과 논문을 2011년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박수종 교수는 서울대 임명신 교수 등 국내 연구진 6명을 포함해 스페인, 미국 등 10개국, 34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에 소속돼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경희대와 서울대가 공동 개발한 시퀀(CQUEAN) 카메라를 이용해 얻은 관측 자료가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는 데 사용된 시퀀은 국내 대학에서 처음 만든 천체관측용 카메라다. 초기 우주 퀘이사(Quasar)를 관측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한 후, 2010년 8월 미국 맥도널드 천문대에 설치했다. 이로써 나은 환경에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우수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박수종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장비를 개발하고, 천체를 관측·연구할 계획이다.

### '2011 경희 Fellow' 8명 선정



2011년 6월 27일 '2011 경희 Fellow'에 8명의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경희 Fellow는 과거 3년간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다. 선정 인원은 연간 20명 이내로 한정되며, 임명 교원은 특별연구격려금을 지원받는다. 책임강의 시간도 연간 6~9 학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 학기에 연간 책임강의를 모두 마치면 나머지 학기에는 연구에 전념, 연구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날 임명된 '2011 경희 Fellow'는 문과대학 영어학부 김종복 교수,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이충기 교수,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권장혁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김성수 교수,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이해정 교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김우식 교수,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 A&HCI, SSCI, SCI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고, 대형 사업단 운영과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뛰어난 연구 업적을 꾸준히 창출하는 등 경희의 학문적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였다.

특히, 이해정 교수는 한의학계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SRC)로 인정된 침구경락 과학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이충기 교수는 2008년과 2010년에 Hospitality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학회인 CHRIE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역량을 발휘해오고 있다. 이해정 교수와 이충기 교수는 2009년에 이어 두 차례 '경희 Fellow'에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희 Fellow'는 2007년 10월 처음 제안된 이후, 12월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화됐고, 2008년 2명, 2009년 10명, 2010년 8명의 교수가 임명됐다.

### 이충기 교수의 캠블링 연구과제, 교과부 '우수성과' 선정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이충기 교수의 연구과제가 '2011 기초연구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이충기 교수의 연구과제는 '유형적 캠블러와 병적 캠블러 간 게임동기·열정·감정상태·행동의의도 간 구조관계 분석'이다. 이 과제는 정부가 시행산업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유용한 연구 결과라는 점을 인정받아 인문사회연구 부문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학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해 '기초연구 우수성과'를 시상한다. 2011년에는 이공계 기초연구 부문 27건, 인문사회연구 부문 8건, 국책연구 부문 15건으로, 총 50건의 '우수성과'가 발표됐다.

### 김상준 교수, 성균관 유교학술원 저술상 수상

공공대학원 김상준 교수가 성균관 유교학술원이 선정한 '올해의 유교학술상(저술 부문)'을 수상했다. 김상준 교수는 2011년 7월 인류문명의 공통 근거를 찾아내고, 유교의 문명사적 위치를 추적한 저서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추 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을 펴냈다. 성균관 유교학술원은 이 책이 "인류 문명사에 대한 근원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유교문명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돋보인다"면서 "유교사상을 현대화하는 철학적 작업으로서, 미래지향적 가치와 향후 유교 학술 장려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옥 교수,  
미래연구정보포럼  
'지식창조대상' 수상**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김대옥 교수가 국제적 학술 공헌도를 인정받아 2011년 12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1 미래연구정보포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인 '지식창조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지난 2009년부터 '지식창조대상'을 도입해 기존의 관행적 추천 방식을 배제하고, 계량정보 분석기법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먼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사의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최근 10년(2001~2011년) 동안 발표된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1% 안에 포함된 한국인 과학자의 피인용 논문을 검색한다. 그 가운데 피인용 순위가 전 세계 20위 안에 든 13개 연구 영역에 대한 논문 1,441편을 선별하고 논문의 피인용 횟수 및 연구자 저자 순위를 산출한 뒤 과학기술 전체 학문 분야에 걸쳐 분야별 연구자의 연구 기여도를 측정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합동학술대회 개최**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의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가 학제 간 연구와 학문적 통섭이라는 큰 흐름에 부응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2011년 5월 27일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서울캠퍼스에서 '시민성, 중심성과 공공성: 인식과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찾아'를 주제로 첫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학문적 모색의 자리였다.

1999년부터 추진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인문학·사회과학·융복합 분야의 우수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3단계에 걸쳐 연간 3억 원 내외를 9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2005년 중점연구소로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단계인 3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호석 교수 연구팀 논문  
(ACS 나노)에 게재**

화학공학과 박호석 교수 연구팀의 논문 '기능화된 그래핀을 이용한 고성능 고분자 나노 복합체 전해질의 개발'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ACS 나노(ACS Nano)> 5월 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박호석 교수는 논문을 통해 기존의 전해질보다 30% 이상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연료전지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해질의 문제점을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의 화학적 기능화를 통해서 해결했다"며 "앞으로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태양전지 같은 에너지 소자와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등 여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과제 지원 아래 진행됐다.

## 실천

###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개최



2011년 9월 15일(뉴욕 시간 9월 14일)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Give Peace Another Chance)'가 주제였다. 뉴욕 UN본부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시간여 동안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총 4,000여 명이 참석, 고등교육의 지구적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회의는 UN본부와 평화의 전당을 실시간으로 연결, 웹캐스트([www.un.org/webcast](http://www.un.org/webcast))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9월 15일 오전 8시 36분(한국 시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UNAI-경희 국제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 확산과 세계평화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민주적 절차를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바로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강의실에서,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평화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제언(On Peace, Another Dream Ever Onward)' 기조연설에서 세계평화의 날 30년 역사를 반추하며 "평화는 정치적 노력, 외교적 수단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인류 의식의 '초월적 역량'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의 힘, 지성의 힘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새 세계, 새 마음을 열어가자는 것이 UNAI 설립 취지라고 이해한다"면서,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출범, 실천인문학 프로그램, 의료봉사 등 교육·연구·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모습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이어서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인간 존엄을 위한 교육·봉사 기금" 창설을 제안한 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공평과 풍요, 소외와 포용, 고통과 연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이 끝난 뒤 '고등교육과 인류의 존엄(Higher Education and Human Dignity)'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UN Academic Impact(UNAI)는 반기문 사무총장 주도로 2010년 11월 설립된 UN 산하 기구로,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UNAI-경희 국제회의는 UNAI가 세계평화의 날 취지를 실행에 옮기는 첫 행사였다.

세계평화의 날은 30년 전인 1981년 7월 경희대가 세계대학총장회(IAUP) 총회에서 제안했다. 그 해 11월 제36차 UN 총회는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15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UNAI가 이번 국제회의를 기획하면서 경희대에 공동주최를 제안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다.

### 유네스코 석좌기관 (UNESCO Chair) 지정

경희대학교가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 석좌기관은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들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희대는 2010년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11년 5월 17일 유네스코 석좌기관으로 확정됐다. 연구 주제는 '미래문명(Future Civilizations)'이다.



현대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미래문명 석좌 기관'으로서 경희대학교는 전 세계 문명, 특히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평화와 공영의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하는 대안적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

### '2011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



미래문명원 실천인문학센터는 '2011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운영했다. 경희대학교 심화반, 강동지역자활센터, 관악일터나눔, 동대문구청반 등 12개 기관에서 강좌를 신청한 360명의 수강생 중에서 294명이 8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쳐 81.7%의 수료율을 기록했다.

경희대학교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인문학 교육을 통해 노숙인,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참여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희대학교는 2007년 실천인문학 강좌를 개설했고, 2008년부터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011년에는 문학, 글쓰기,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1, 2학기로 나누어 주 1회 2시간씩 강의를 진행했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이번 수강생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입학생 1,840명, 수료생 1,386명을 배출했다.

### 네오르네상스 인턴십 장학 지원

네오르네상스 인턴십 장학은 대학과 사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실천적 의식 고취를 통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NGO단체 등의 인턴십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다. 2011년 5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 예비 선발자 발표, 지도위원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된 2011학년도 1학기 장학 수혜자는 총 9명(학부 4명, 대학원 5명)이다. 2학기에는 총 10명(학부 4명, 대학원 6명)의 학생이 네오르네상스 인턴십 장학금을 받았다.

### 유네스코 워크캠프 파견



경희대학교는 인종, 문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직접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구적 존엄'을 지향하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총 84명의 재학생을 유네스코 워크캠프(KHU-UNESCO International Workcamp)에 파견했다. 유네스코 워크캠프는 재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어울려 특정 지역에서 교육,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고고학 조사, 농업, 건축, 지역사회 개발 등 종합적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2~3주 동안 진행되는 워크캠프는 전 세계 청년들이 동참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성격도 갖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깊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파견 학생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서류 접수는 3월과 10월 각각 실시됐다. 2011년 7~8월에 진행된 하계 워크캠프에는 48명의 학생들이 대만, 터키, 인도, 베트남, 라오스로 파견됐다. 동계방학인 2012년 1~2월에는 36명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열리는 워크캠프에 참가한다.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워크캠프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교류·협력하면서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과 지구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도록 돕는다.

## 미래문명원, UN·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7명 선발

지난해 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학생 7명을 선발·파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화와 공영의 대안 문명을 모색하고 21세기 국제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희대학교는 2006년 이후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UN 및 국제기구에 파견해 국제기구 업무를 습득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월 선발 공고를 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영어 논술과 면접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최종 대상자 7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UNDP, UN DESA, CoNGO, UN PRME 등에서 2~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한다.

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2011 Peace BAR Festival '몸과 재앙' 주제로 개최



제30주년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2011 Peace BAR Festival'이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세계평화의 날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경희대학교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Peace BAR Festival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humanly Rewarding)' 지구공동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세계시민의 학술·문화 축제다. 행사는 국제학술회의, 미래문명포럼, 경희학생포럼으로 진행됐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국제학술회의는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삼았다.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 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현대 문명이 맞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초강연자인 미국 노트르담대 학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는 "정치적 몸(Body Politic)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몸"이라고 정의하고, "재난과 재앙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적 몸의 치료법은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디의 아힘사(비폭력), 사티아그라하(진리 파약) 정신을 강조했다. 국제학술회의는 라운드테이블로 막을 내렸다. '몸과 재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한자리에 모여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달마이어 교수는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역량, 호기심을 키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라며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10월 28일에는 학생·교수가 함께 미래의 대학교육과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 미래문명포럼, 그리고 학생 스스로 '2011 Peace BAR Festival'의 주제를 탐구한 경희학생포럼이 개최됐다. 미래문명포럼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미래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은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계와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공부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대학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오늘 제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말로 미래문명포럼을 마무리했다. 경희학생포럼에서는 우리의 몸과 우주과학, 문화예술, 인류공동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피고, 이런 연관성이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 논의했다.

###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본격적인 활동



경희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은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지향하는 동시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구사회에 기여하는 거교적 사회공헌 기구다. GSC는 2011년 9월 미래문명원에서 추진해온 사회공헌 업무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문가 초청간담회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학계열의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edical Service Corps를 구성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는 캄보디아에 30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실천인문학센터 활동을 소개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희망나눔 2011’ 캠페인을 펼쳤다.

2009년 10월 출범한 GSC의 핵심 사업은 사회공헌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공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내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GSC는 대학 사회공헌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며 억압과 갈등, 기아와 질병, 기후 변화, 에너지와 식량,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인류사회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이다.

### 지진 피해 일본에 성금 전달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9,000만 원을 2011년 4월 25일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희대학교는 3월 16일 조인원 총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경희 일본 긴급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교직원 급여의 0.5%를 단체 공제하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 지역주민 대상 컴퓨터 교실 ‘해피닷컴’ 운영



2011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회기동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 ‘해피닷컴’을 운영했다. ‘해피닷컴’은 경희대학교와 회기동 주민센터,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원)생들이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교육은 일주일에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하계방학 때는 재학생 자원봉사자 11명이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때는 재학생 자원봉사자 13명이 주민 20여 명을 교육했다.

2010년 11월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은 회기동 주민센터,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회기동 주민 경희대 중앙도서관 이용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은 지역주민은 1인당 3권의 책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고, 시험 기간을 제외한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일반열람실 이용도 가능해졌다. ‘해피닷컴’은 이 합의를 기반으로 방학 기간에 중앙도서관 정보교육실을 개방하면서 기획됐다.

### 경희기록관, 회기동 변천사 담은 역사 사진전 개최



경희기록관은 2011년 5월 30일~31일 이틀간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서울캠퍼스 일대가 지난 6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시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는 '회기동의 변모를 담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6월 7일~9일에는 회기동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회기역 내부 공간에서 2차 전시회를 가졌다.

이 사진전은 경희기록관의 제안과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됐다. 회기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기동의 역사가 담겨 있는 1940~1990년대 사진을 공모했다. 경희기록관은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등의 외부 자료를 수집한 뒤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50여 점의 사진을 선별했다. 남기원 경희기록관 학예연구원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며 "지역사회와 경희대학교가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사진전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 사회교육원, 평생학습원 개원

2011년 3월 사회교육원은 서울 동대문구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교육 수월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폭과 넓이를 확장하며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했다. 평생학습원은 독서지도사·한자지도사 등 자격 취득 강좌도 개설해 지역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했다. 강좌는 6월까지 서울캠퍼스에 신축된 무용학부관에서 진행됐으며, 자격 취득 프로그램과 노래교실·요가 등의 취미활동 등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헌혈·장기 기증으로 '생명나눔' 실천

2011년 6월 20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공동으로 헌혈 및 장기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KBS 연중기획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눔시다' 프로그램을 통해 4시간 동안 생방송됐다. 이날 헌혈 및 장기 기증에 교수, 직원, 학생, 경희대학교 병원 의료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문 앞 무대에 마련된 희망나무에 "36.5°C의 뜨거운 마음을 나눠주세요", "헌혈은 가장 쉬운 나눔입니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 서울캠퍼스 경희봉사단, 봉사 페스티벌 개최



서울캠퍼스 경희봉사단은 2011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발로 뛰 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 행사는 다문화, 아동·가족, 장애인, 환경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봉사 페스티벌은 16일 청운관 앞에서 열린 '생각나무 캠페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올림픽, 다문화 음식 축제, 장기대회, 에코 팜프 등으로 진행됐다. 17일에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장애인 OX 퀴즈, 승가원 바자회, 한방차·수지침, 사랑의 엽서 쓰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시각장애 체험을 위한 '블라인드 레스토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행사 기간에 MBC 다큐멘터리 '눈물 3부작'을 하루에 1편씩 상영하는 환경영화제가 개최돼 구성원의 눈길을 끌었다.



**최진경·김나혜·정하나 동문  
 UN 정직원으로 채용**

2011년 8월 최진경(평화복지대학원 50기) 동문이 UN 인사과(Offi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평화복지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국제기구에 진출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최진경 동문은 취업에 앞서 먼저 인턴십에 눈을 돌렸다. 2009년과 2010년 두 번의 인턴십 기회는 UN의 여러 부서 사람과 소통하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 경희대학교의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Summer를 통해 인연을 맺은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키스 테스터 교수의 추천도 큰 도움이 됐다.

경희대학교는 UN 공보국(UN DPI), 경제사회국(UN DESA) 등의 부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 학생에게 네오르네상스장학을 지원한다. 2006년 장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47명의 학생이 국제기구에 파견됐으며, 최진경 동문 외에도 김나혜(국제경영학 2004), 정하나(정치외교학 2004) 동문이 UN 정식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벽화 그리기 봉사단  
 '해피아트' 진행**



4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제2기 '해피아트' 봉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회기동 구 현대 아파트 외벽에 회기동의 역사를 벽화로 기록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단 '해피아트'는 미술대학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참여하는 경희대학교의 재학생 봉사단이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회기동 일대의 주거 환경에 시각적 변화를 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10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해피아트'는 2011년 2기 봉사단을 구성했다.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회기동 주민센터와 함께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피아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예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2011년에는 2010년보다 미술·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해피아트'는 아동가족학과를 중심으로 한 재학생이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해피하우스'처럼 전공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희-씨티그룹  
 NGO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공공대학원은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8주 동안 한국씨티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6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대학(원)생 100명이 전국 71개 NGO에 파견돼 다양한 현장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제6기 NGO 인턴십은 NGO의 역할과 기능, NGO단체 업무 현황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지역별 운영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한편, 대학과 전국 NGO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과 NGO 간, 학생과 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몰래 산타'**



크리스마スイ브인 2011년 12월 24일 경희 구성원 350여 명은 산타클로스가 돼 서울시 동대문구 곳곳에서 '사랑의 몰래 산타' 활동을 펼쳤다. 몰래 산타 봉사자들은 10~16명으로 한 조를 구성해 회기동, 이문동, 전농동 등 동대문구 일대의 다문화가정 79가구를 방문, 아이들에게 선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희대학교에서 매년 크리스마スイ브에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몰래 산타'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고자 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다. 2007년 처음 시작한 이래, 참가자가 100명에서 350여 명으로 늘어 경희의 대표적인 연말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일반 학생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학생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거듭났다.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희대학교는 2011년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회화, 청취, 독해, 작문, 문법을 통합한 한국어 강의로 이루어진 수업은 1, 2학기로 나뉘어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36주간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6년 9월 신설됐다. 그동안 총 21개국, 1,300여 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강좌를 통해 경희대학교와 동대문구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경희, 꿈꾸는 학교'**



'경희, 꿈꾸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상담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재학생 멘토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무료로 가르치는 한편 특별활동과 1:1 상담을 실시한다.

2011년 3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경희, 꿈꾸는 학교' 4기에는 재학생 멘토 21명과 초·중·고등학생 28명이 참여했다. 특별활동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갔다. 6월부터 9월 까지 진행된 4.5기에는 재학생 멘토 19명, 초·중·고등학생 19명이 참여해 팔빙수 만들기 체험 학습을 진행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5기에는 재학생 멘토 17명, 초·중·고등학생 21명이 참가했다.

2009년 하반기에 첫 개강을 한 이후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한 모델로 자리 잡은 '경희, 꿈꾸는 학교'는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주한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실**

주한 외교관과 가족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실을 4차례 개설했다. 2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강좌 개설 시기에 맞는 한국의 역사, 예술, 음악과 관련된 특강 및 문



화 체험 기회가 포함됐다. 한 교실당 13개국 34명~29개국 68명이 입교했으며, 우루과이 대사, 벨라루스 대사, 파나마 대사 등이 참여했다.

2000년 첫 교실이 개설된 이래 2011년까지 52차례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장학금 지급

국제교육원은 경희대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이래 해외 입양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그 일환으로 (사)해외입양인연대(G.O.A.'L)와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입양인에게 한국어 장학금 지급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11년에는 7개국 14명의 해외 입양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 국내외 의료봉사



#### 경희의료원·경희국제의료협력회, 동티모르 의료봉사 및 헌옷 보내기 운동

경희의료원과 사단법인 경희국제의료협력회는 2011년 3월 '동티모르 헌옷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은 헌옷 60박스를 동티모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번 헌옷 지원 활동은 경희국제의료협력회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티모르 딜리에서 펼친 제16차 해외 의료봉사를 계기로 시작했다. 경희국제의료협력회 회원인 장성구 비뇨기과 교수와 송지영 정신과 교수가 경희의료원 직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동티모르 헌옷 보내기 운동' 소식을 알렸으며, 직원들의 참여로 진행됐다. 경희국제의료협력회는 개발도상국의 의료 낙후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단체로 100% 회원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경희의료원, 몽골 의료봉사

경희의료원 몽골봉사단은 2011년 7월 20일부터 6일간 몽골 투브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의료봉사에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 6개 진료과와 영상의학과 초음파검사, 진단검사의학과 일반검사 및 혈당검사, 약국 등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 가정의학과 최현림 교수 등 9명의 교수진과 간호사, 약사, 행정지원인력 등 경희의료원 인력 23명과 약국지원, 자원봉사자 7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몽골 현지인과 교민 등 1,256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 경희의료원, 러시아 연해주 나훗카 의료봉사

경희의료원은 2011년 6월 28일부터 5일간 러시아 연해주 나훗카 시립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소화기내과 김병호 교수 등 15명의 의대교수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통역사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 활동에 앞서 봉사단은 6월 27일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의료봉사를 통해 러시아의 많은 환자들이 경희의료원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경희의료원의 이름을 러시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해외봉사팀, MBC ‘코이카의 꿈’ 스리랑카 지역 의료봉사

경희의료원은 지난해 10월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코이카(KOICA)의 꿈’에 참여, 스리랑카 지역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경희의료원 의료진은 2011년 10월 9일 한국인의 지구촌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전하는 프로젝트인 ‘코이카의 꿈’ 촬영을 위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 영화배우 류덕환, 개그맨 한민관 등과 함께 스리랑카로 출국했다.

해외봉사단원들이 12일간 스리랑카 고산지대에 위치한 누와라엘리아 지역 내 빈민촌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경희의료원 의료진은 의료캠프를 설치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내전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스리랑카 소녀 산가비 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 경희의료원에서 의족 착용 및 치료를 받았다.

###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국내외 의료봉사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은 2011년 6월 25일 여주군 산북면사무소에서 농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4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한방, 정형외과 등 6개 과목을 진료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3,000여 명의 주민이 무료 진료의 혜택을 받았다. 또 10월 29일에는 충남 당진에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진료버스 3대(방사선과, 치과, 이비인후과)를 파견해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치료활동을 펼쳤다.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이면 국내외 어느 지역이든 찾아가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6년 의사, 간호사, 행정직, 기능직 등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등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희 인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중국 연변(延邊) 의료봉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1년 8월 3일부터 3일간 중국 연변 연지(延吉) 제2인민병원에서 조선족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병원 의료진과 행사 지원을 위한 롯데마트 관계자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형외과·내과·치과 의료진이 주축이 돼 진료했다. 이 의료봉사를 통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중국제2인민병원 의료진은 1:1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문 교류를 병행했다.



## 의과학

###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및 장기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경희의료원이 2011년 10월 5일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경희의료원은 재도약 선언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달식,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조인원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62년간의 ‘학문과 평화’ 전통 속에서 지난 1971년 설립된 경희의료원은 ‘건강한 인류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3의학을 모색하며, 동서의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고 평가했다. 조인원 총장은 “대형 병원의 잇단 출현과 의료사회의 경쟁 심화로 위축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뒤 “경희의 강점인 의학계열의 학제 간 협력으로 소통과 융합의 창조적 의생명과학, 임상·연구·교육의 통합 발전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상·연구·교육의 창의적 결합으로,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경희의료원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격려했다.

유명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경희의료원의 지난 40년은 도전, 열정, 창조로 요약되는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라며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경희의료원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새로운 도전과 열정의 100년 꿈을 그려보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경희의료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9월 20일부터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서약 캠페인’을 펼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의료원 본관 로비와 경희대학교 정문에서 장기기증 신청을 받았다. 장기기증 희망서약 캠페인에는 400여 명의 경희의료원 구성원과 내원객, 경희대학교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했으며, 장기기증 서약서는 기념식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달됐다.

또 경희의료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6월부터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등지에서 의료봉사를 전개했다. 9월에는 장기기증 희망서약 캠페인과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고, 연말까지 역사 기록 사진전, 국제 심포지엄, 송년 음악회 등 개원 4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나갔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

2011년 6월 10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강당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 의료기관 인증 획득, 외국인 환자 유치 최우수기관 수상, 급성기 뇌졸중 치료 1등급 의료기관 선정, 장기이식 최상위 전문기관 공인 등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온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개원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조인원 총장은 “최근 몇 년간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며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예견하게 된 경희대학교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 구현을 위한 ‘지구사 회봉사단(GSC)’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희대학교는 인성, 진료, 연구, 교육의 창의적 결합으로 의료사업의 새 미래를 열어갈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성원의 꿈과 희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 ‘기쁨, 환희, 감사’라는 3개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하며 “5년은 사람 나이로 따지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념식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지난 5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의 역사였다”고 말하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희의 가족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영상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우수 교직원과 우수부서, 장기근속자 및 경희의학상 수상자를 위한 포상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로 모금된 10,120,400원이 강동구청에 전달됐다. 기념식이 끝난 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성취한 지난 5년간의 임상 및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경희의료원 의과학연구원이 2011년 11월 14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소했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조직을 수집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검체은행으로, 질병 예방과 진단, 신약 개발, 맞춤 치료 등 헬스 테크놀로지(Health Technology)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 요소다. 경희의료원은 연구 및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체의 조직, 혈액, 체액 등 검체를 수집·저장하고, 처리 및 분양을 담당하는 검체은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2010년에는 다국적 제약회사 (주)사노피-아벤티스와 검체은행 설립과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검체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 의대·의전원 전용 기숙사 건축기금 10억 원 약정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용 기숙사 신축에 교수·동문·학부모가 발 벗고 나섰다. 2011년 6월, 기숙사 건축기금 모금사업을 시작한 의과대학은 1,000만 원을 기부할 100인을 모아 건축기금 10억 원 조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모금사업은 대학기금 사업에 구성원이 아닌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건축기금 모금을 시작한 6월 한 달 동안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김영설 교수를 비롯한 교수 29명, 동문 26명, 학부모 8명 등 63명이 경희발전기금 약정서에 서명했다. 일시불로 기금을 내는 기부자도 있었지만, 많은 기부자들이 100개월(8년 4개월) 동안 1인당 매월 10만 원의 기금을 기부할 계획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희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경희대학교병원이 정부가 2011년에 처음 실시한 의료기관인증제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 등 전 부문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경희대학교병원은 2011년 1월 18일부터 4일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으로부터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중심으로 안전보장 활동과 지속적인 질 향상 등 4개 영역, 13개 장, 40개 조사 항목에서 서면 및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의료기관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국제수준(ISQua)의 인증 기준에 따라 병원 서비스 및 시설을 평가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4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제도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웰니스센터 개소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2011년 3월 대학병원 최초로 '웰니스센터(Wellness Center)'를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웰니스센터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의 심신 회복까지 도와주는 통합적 치료 센터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웰니스센터는 한방비만체형클리닉, 마음건강클리닉, 한방재활클리닉 등 3개의 전문 클리닉으로 구성된다. 비만, 스트레스, 중풍 후유증,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주된 치료 분야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전문 의료진이 공신력 있는 양·한방 종합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체질적 특성에 따라 맞춤 치료를 제공한다.

### 약학대학 동물실험 시설 국제 인증

약학대학의 동물실험 시설이 2011년 3월 5일 국제 동물실험 관리평가 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로부터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받았다. 경희대학교가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관리하며 최적 상태의 동물실험실을 유지하고 있음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것이다.

국제 동물실험 관리평가 인증협회는 2010년 11월 23일 심사단을 파견, 미리 제출한 동물실험 시설 운영에 대한 서류를 바탕으로 각종 동물실험 관련 프로그램의 실사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 경희의료원 뇌신경센터 개소



경희의료원이 2011년 6월 13일 본관 1층에 뇌신경센터를 개소했다. 뇌신경센터는 두통클리닉, 뇌혈관질환팀, 이상운동질환팀, 감마나이프클리닉, 간질클리닉, 뇌신경기능장애클리닉, 뇌종양클리닉, 척추-신경클리닉, 치매클리닉 등 총 9개 분야의 클리닉으로 세분화됐다.

경희의료원은 뇌신경센터 개소와 함께 뇌신경계 질환 유관부서인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혈관중재시술)와 뇌신경계 검사실 등을 외래에 통합 배치해 환자 동선을 고려하고 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외래에서 환자의 치료와 검사를 실시할 때 타분야 교수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진료실을 2개 이상 오픈해 원스톱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 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개소

경희대학교병원은 9월 7일 심장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심장혈관센터는 순환기내과, 심장외과, 심장소아과, 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외래 진료실과 심장혈관질환검사실을 모두 한 곳에 배치해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관련 진료과의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 간의 긴밀한 협진체제를 구축해 환자 맞춤형 최상의 진료 환경을 마련했다.

심장혈관센터는 흉통클리닉, 혈관질환센터, 부정맥클리닉, 심방세동클리닉, 심부전클리닉, 심장영상센터 등으로 운영되며, 환자 개인에 맞춘 차별화된 전문 진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외부 병원과 핫라인을 개설, 위급한 심장혈관 질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당일 진료, 당일 검사로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원스톱 심장클리닉'도 운영한다.



### 감마나이프센터 20주년 맞아 퍼펙션 도입·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병원이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2011년 8월 22일 최신형 '감마나이프 퍼펙션'을 도입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임영진 병원장, 린드퀴스트 교수 등이 감마나이프를 통한 뇌종양 치료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퍼펙션'은 완전 자동화 감마나이프 기기로, 치료의 정확도가 높으며 방사선 선원 조절로 감마선이 방출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다. 또 감마나이프 기기의 조준기 크기가 3배 정도 커 치료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4년 연속 1위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2011 제13차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한방병원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산업 브랜드파워는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각 브랜드가 보유한 영향력을 파악해 지수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을 실시, 각 병원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를 평가해 순위가 매겨진다.

### 한의학 체험단 진행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한의학 체험단'을 진행했다. 한의학 체험단은 2011년 5월부터 매달 두 가지 테마로, 월 2회 실시됐다. 체험단은 기능성 소화불량, 비만과 이상 체형, 사상체질로 알아보는 대사증후군, 지방간의 관리와 치료 체험 등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 진단받고, 치료 방법을 경험했다.

사상체질로 알아보는 대사증후군 체험단은 사상체질 검사와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으며, 지방간 프로그램을 신청한 체험단은 개별 상담과 함께 스트레스로 간 기운이 울체됐을 때 기(氣) 순환을 도와주는 기공요법을 배웠다.

### 제12회 한의학국제박람회 참가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2011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2회 한의학국제박람회'에 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했다. 박람회에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알레르기·호흡기질환 클리닉, 관절염 클리닉 등 전문클리닉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한방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암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는 여혈 검진, 한방 음악치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독일 교정전문회사 포레스타덴트와 MOU 체결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은 2011년 2월 14일 세계적인 교정전문회사인 독일 포레스타덴트(Forestadent)와 '특화된 교정치료 시스템 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은 한국에서 개발한 특화된 BO(치아 이동 시 최소한의 장치만을 이용하는 교정법), SSO(심한 돌출잇몸이나 개방교합 환자에게 부분마취로 시행하는 교정

법) 치료법의 표준화와 맞춤형 제품 개발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 향후 전 세계 교정시장에서 맞춤형 치료 키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 박영국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박영국 교수가 2011년 4월 2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영국 교수는 2007년 나노기반 차세대 방사선 진단 기 연구과제를 수주하면서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 진단기의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또한 2009년에는 '나노소재 기반 멀티엑스선 및 단층촬영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해 원천기술의 확장을 시도했고, 그 결과 2011년 6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대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 임영진 병원장, ABI 'The Hippocrates Award 2011' 수상

임영진 경희대학교병원장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인명정보기관(ABI)의 'The Hippocrates Award 2011'을 수상했다. 임영진 병원장은 1994년 방사선 수술의 메카인 스웨덴 카롤린스카병원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수술의 첨단 시술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뇌 혈관 질환 및 뇌종양의 감마나이프 수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의사 중 감마나이프 최대 시술 기록 보유자로 1992년부터 최근까지 3,000회 이상 시술했다. 임영진 병원장은 '마르퀴즈 후즈후 보건의로 인명사전'에 세 번 등재된 바 있다.

###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통합 허브사이트' 오픈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2011년 5월 16일 통합 허브사이트 '경희대학교의료원(www.khuhs.or.kr)'을 오픈했다. 도메인 이름은 'Kyung Hee University Healthcare System'의 약어로, 2010년 7월 개최한 의료기관 비전 선포식에서 의료기관을 통합 운영할 때 사용하기로 한 새로운 영문 명칭이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이 통합 허브사이트를 구축하면서 강조한 것은 병원과 고객의 쌍방향 소통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의무부총장(의료원장)실 건의 메일 보내기' 코너를 설치, 환자들이 진료 및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건의사항을 의료기관 CEO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브사이트를 구성한 점도 큰 특징이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들은 각 의료원 산하에 의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동서협진센터를 각각 설치해 양·한방 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병원들과 차별되는 특징이다.

### 경희의료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경희의료원은 2011년 10월 모바일 홈페이지(m.khmc.or.kr)를 오픈하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시간표, 의료진 소개 등 기본적인 콘텐츠 이외에 새소식, 의학·치과·한방 건강상식, 만화 의학상식 70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SNS 소통광장을 통해서도 트위터·페이스북·의료진 블로그 등으로 연결된다. 특히 국내 병원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에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를 탑재했다.



### 경희의료원 러시아어 홈페이지 개설



경희의료원은 2011년 6월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개설된 러시아어 홈페이지는 경희의료원을 찾는 러시아 환자들이 의료정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홈페이지에는 경희의료원 소개 및 배치도, 경희대학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진료과와 의료진 소개, 병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진료 안내 등 다양한 건강정보들이 담겨 있다.

러시아어 홈페이지 개설은 러시아 환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것이다. 2009년 러시아의 SMS사 직원 13명은 한국을 관광하던 중 경희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갔다. 그 입소문과 경희의료원의 노력으로 러시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러시아 자치공화국 투바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경희의료원을 찾은 러시아 환자는 2009년에 비해 7배 늘어났다.

### 경희의료원, 주간 뉴스레터 〈굿모닝 경희〉 발송

경희의료원은 2011년 12월 첫째 주부터 주간 뉴스레터 〈굿모닝 경희〉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주일 단위로 병원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 교직원과 일반인 등 1만 6,000여 명에게 발송한다. 뉴스레터는 '건강이슈&언론보도'와 '건강강좌&병원행사'라는 두 가지 큰 테마로 구분해 의료건강 뉴스 가운데 이슈가 되는 정보와 병원의 무료 건강강좌, 행사 등 유익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했다.

###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제4회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2년 연속 수상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가 2011년 3월 24일 '제4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학병원 전문센터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동서협진센터는 양·한방 협진의 효과적인 '퓨전 치료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협진센터는 동양의학과 서양 의학을 접목한 종합 전문 요양기관으로, 신장병, 관절, 척추, 암, 중풍, 통증 및 노화 방지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10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은 한국 의료의 세계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의료서비스 기관을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1년 11월 25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의사, 간호사, 국제진료 담당자, 행정직 등을 대상으로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의료기관별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례 발표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심포지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진료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급증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09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특히, 러시아 환자는 최근 3년간 7배 늘어 급성장세를 나타냈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의 장점인 양·한방 협진체제로 이뤄지는 건강검진과 진료 시스템이다.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의 편의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2008년부터 개설·관리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급증하는 러시아 환자를 위해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 ‘근거중심의 동서협진 모형 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1년 4월 22일 ‘근거중심의 동서협진 모형 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경희대학교가 ‘창조 21’이라는 기치 아래 세계 최고 학술기관을 지향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근거중심의 동서협진 모형 개발’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협진병원과 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참가해 한약과 양약 병용 투여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다 나은 협진, 성공적인 동서협진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창조 21’은 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학술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기존의 학문 틀과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연구·교육·실천·교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는 ‘창조 21’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공간을 넘나들며 미래 학문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심계식 교수, 소아내분비학회 학술연구비 대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계식 교수가 2011년 5월 20일 열린 ‘제30차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연구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회원들이 연구한 각종 연구와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매년 선정해 LG그룹이 지원하는 연구비 1,000만 원을 전달한다. 심계식 교수의 수상 논문 제목은 ‘야생형 암컷 마우스에서 난소 적출술 후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베타 작용제와 에스트로겐의 투여에 따른 성장 양상 비교’다. 심 교수의 연구 결과는 성인 키 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억제 또는 치료 지침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박동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동석 교수가 2011년 3월 20일 대한한 의사협회 제5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동석 교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대형 국책 과제들의 연구 책임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다. 박동석 교수는 관절염 한방 신약(WIN-34B)과 천연물 신약을 개발했다. 국내외 특허등록만 20여 건에 달하며, 수 십 편의 SCI 논문과 160여 편에 이르는 국내 학술논문을 발표, 한의학과 침에 관한 연구를 선도해왔다.



**유명철 의무부총장  
'합춘대상' 수상**



유명철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이 2011년 3월 22일 제12회 합춘대상 '의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합춘대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원 중에서 자기의 생애를 통해 학술연구, 의료봉사, 사회공헌 부문에서 크게 공헌했거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유명철 의무부총장은 의술을 통한 '베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986년 X-ray 촬영기를 장착한 차량을 처음으로 제작해 전국 오지를 찾아다니며 무료 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5년 동안 무료 봉사팀을 이끌고 강원도 고성에서 제주도 서귀포까지 전국의 의료 취약 지역을 순회하며 총 345회, 6만 명 무료 진료라는 기록적인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박재우 교수, 한방병원 입원  
적절성 평가기준 최초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박재우 교수가 한방병원 입원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재원 적절성 평가기준(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of hospitalization day)'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평가기준은 보건 의료 정책 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 Health Care> 8월호(24권 3호)에 게재됐다.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황지인 교수와 공동연구로 평가기준을 개발한 박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방병원에서 부적절한 입원의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을 분석했다.

**강자현 교수  
PC기반 녹내장 검사기  
개발 및 최고발명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강자현 교수는 포항공대팀과 함께 PC로 제어할 수 있는 녹내장 검사기를 개발했다. 국내 의료진에 의해 조기에 녹내장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가 개발된 것이다. 이 기기는 PC용 프로그램과 탈부착식 차광장치 등 간단한 장비로 구성돼, 시신경의 손상 여부를 시력검사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자현 교수는 PC기반 녹내장 검사기로 2011년 12월 특허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2011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C기반 녹내장 검사기는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유희천 교수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이중웅 방사선사  
한·일의학물리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중웅 방사선사가 2011년 9월 2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일 의학물리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젊은 과학자상은 의학물리학에 입문한 신진 연구자 중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중웅 방사선사는 'Exposure 횡수에 따른 IP(Image Plate) 화질 변화의 정량평가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계는 그의 연구가 영상 처리를 통한 방사선 영상의 정량평가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영상평가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웅 방사선사는 이밖에도 공동연구로 방사선 영상의 정량평가에 관한 SCI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 세계와 경희

경희대가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특히 외국인 교환학생과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2011년 9월 현재 경희는 전 세계 68개국, 428개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최근 들어 동남아·중동·아프리카까지 교류 지역을 넓히고 있다. 1981년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희의 평화정신과 '국제화 마인드'는 지난해 9월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 것에서 재확인된다. 창학 초기부터 경희는 지구적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희대가 매년 하계방학 기간에 개설하고 있는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2011 Summer Program'에는 28개국 550명이 참가했다.

**해외 28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경희대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교육의 국제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해 왔다. 2011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와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일본 메이지대학 등 19개국 28개교와 신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현재 68개국, 428개교(2011년 9월 현재)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자매대학은 미국 74개교, 일본 43개교, 중국 55개교, 유럽 100개교에 이르며,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중동·아프리카로 교류 지역을 넓히고 있다. 매년 자매대학들과 상호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해외 수학 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 교류 외에도 활발한 문화·스포츠 교류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휴먼 네트워크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외 대학 관계자 초청  
교류 확대 논의**

대외 인지도 상승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외 대학 관계자를 초청했다. 2011년 3월에는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캐나다 톨슨리버스대학교, 중국 동화대학 등 10개 대학의 관계자와 복수 학위(안) 및 교류, 교환학생 등 자매대학 방문, 영어 연수, 자매대학 교류협정 등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매월 5~18개 자매대학 등 해외 대학과 교류, 복수학위 가능성,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 참관 및 교류, 홈스테이 연계 등 다양한 대학과 학문 교류 방법,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Global Collaborative 2011  
Summer Program**



경희대학교의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2011 Summer Program' 이 2011년 7월 4일부터 4주 동안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동시 진행됐다. 6회를 맞은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매년 하계방학 기간에 문화·경제·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의 세계 석학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실무진을 초청,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교육과 다양한 참여교육을 제공한다.

2011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UN, 세계 NGO 협의체인 CoNGO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문명'(서울캠퍼스), '녹색 지구를 향하여'(국제캠퍼스)였다. 28개 정규 강좌(서울: 16, 국제: 12) 외에도 Intercultural Communication 특강, Faculty Seminar 등의 특별 강좌와 Buddy Night, 한국 영화의 밤, 태권도 수업, 한류 문화체험과 같은 학외 활동이 이뤄졌다. 주말에는 경복궁과 인사동 등을 탐방한 서울시티투어와 전주 한옥마을 방문, 보령 머드축제 참가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목적으로 개설된 Global Collaborative에 대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해외 학생 25명, 국내 학생 177명이 참가했으나, 2011년에는 28개국 55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외부 평가에서 비중 있게 반영되는 지표는 아니지만, Global Collaborative는 국제화를 선도하는 경희대학교의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Global Collaborative Abroad



전공별 특성화 교육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Global Collaborative Abroad(해외 집중 전공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Global Collaborative Abroad는 외국 대학과 전공과목을 연계해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외국 대학에서 동일·유사 전공의 학점을 취득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희대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lobal Collaborative Abroad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 과정은 전공 연수와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는 7+1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2011년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간호학과,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Ecole Polytechnique)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중국 베이징대학교(Beijing University) 한의학과 등 8개국 14개교 13개 학과에 306명(7+1 프로그램: 3개 학과 31명, 전공 연수 프로그램: 10개 학과 275명)을 파견했다.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으로 중국 요녕중의약대학 한의학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Auckland University) 공과대학 등 3개국 3개교 6개 학과에 학생 40명을 파견해 전공 연수 과정을 시행했다.

파견 대학은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전공별 우수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파견에 앞서 학생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외국어와 전공, 학습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등을 배웠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고 학습포트폴리오와 K-CESA 글로벌 역량 지수를 활용한 글로벌 역량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K-CESA 글로벌 역량 지수가 5% 이상 향상됐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포트폴리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배웠다. Global Collaborative Abroad는 학생과 교수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복수학위제

경희대학교는 해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학생이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9개국 14개교와 협정을 체결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수학위제는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복수학위제는 국제교류처 혹은 해당 단과대학이 외국 대학이나 학과를 선정하고, 커리큘럼을 검토한 후 협정을 체결해 운영한다. 협정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자매대학으로 파견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복수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 자매대학 학생을 초청한다. 복수학위 과정으로 초청 또는 파견되는 학생에 대해 편입과 같은 차원에서 학점 인정과 이수 요건을 정한다.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교육의 국제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경희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캠퍼스 국제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경희대학



교는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전체 재학생의 9.6%)과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에서 1위에 올랐다. '2011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국내 유입 교환학생 비율 15위(국내 1위),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6위(국내 2위)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 간 교류협정을 통해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학생을 파견 및 초청하는 제도다. 2011년에는 기존의 아시아, 유럽 지역뿐 아니라 모로코 등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견 국가를 확대하고, 베트남, 싱가포르, 볼리비아, 멕시코 등 새로운 지역의 자매대학 학생을 초청했다. 교환학생 파견 지역 및 학교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다양한 국적의 해외 교환학생을 초청해 경희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경희대학교는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의 지속적인 증가와 안정적인 유지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학기 중에 수차례 교환학생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환학생 선발과 파견, 해외 교환학생 초청은 매 학기에 한 번 진행된다.

#### GKS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국제 교환학생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GKS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KS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학비를 지급하고, 정부는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학과 정부 간 협력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GKS 우수교환학생 지원사업에서 경희대학교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2011년 3월, 7개국 8명의 우수교환학생을 배정받아 9~12월에 장학금을 지급했다.

#### 한·일 대학생 교류장학

일본 자매대학의 교환학생들에게 국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 장학금을 실시했다. 정부는 매년 한·일 대학생 교류 장학사업에 참가할 대학을 공모해 선정 대학에 국고 장학금 수혜 인원을 배정한다. 경희대학교는 2011학년도 1학기에 3명, 2학기에 5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지원받은 국고 장학금은 국내 2위의 수혜율에 해당하는 4,590만 원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유학준비금 150만 원과 매달 8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를 통해 2011학년도 일본 자매대학 초청 교환학생들의 유학생들과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 특별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학술교류 및 협정을 맺은 외국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교환학생 파견제도(Study Abroa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해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특별교환학생 장학사업을 통해 1학기에 영어권(미국, 영국)에 37명의 학생을, 중국어권에 46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2학기에는 영어권에 40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파견 학생은 교환학생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한 학기 동안 정규 과정을 수강한다. 파견 기간 동안 등록금은 경희대학교와 자매대학에 납부하고 소정의 장학금(1인당 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공고 기간은 3월과 9월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대학에서 적은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학생들과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국제화 감각과 어학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특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정규 학점을 이수하고, 귀국 후 학점을 인정받아 정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동·하계 언어 및 문화연수단 파견

동계와 하계방학 때 언어 및 문화 연수단을 파견, 어학과 전공 연수뿐 아니라 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연수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 언어권별로 성적,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현지에는 인솔자가 동행함으로써 학생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11학년도 하계방학에는 149명의 학생들이 미국 캘리포니아국제경영대학(CIBU)과 캐나다 톰슨리버스대학교(Thompson Rivers University), 중국 동화대학, 상하이외국어대학, 일본 간사이학원대학 등 5개국 11개교에서 연수했다. 동계방학에는 미국 CIBU, 영국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 중국 성공대학, 상하이외국어대학, 일본 도쿄국제대학, 후쿠오카대학 등 8개국 14개교에 230명을 파견했다.

### 해외 자매대학 연수단 초청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다변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대학 연수단을 초청했다. 영어권에서는 미국 피츠버그주립대학교(Pittsburg State University) 연수단 21명을 시작으로, 중국 마카오국립대학교(University of Macau) 10명,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14명의 연수단이 경희대학교를 방문했다. 일본어권에서는 와세다대학교, 니혼대학교, 주오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15개교의 한국어 연수단 138명과 호쿠리쿠대학교 학생 연수단 8명을 초청해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특강을 개설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경희대학교는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에 따라 매년 연수단을 초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의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연수단 초청으로 양교는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 해외 자매대학 서머스쿨 파견



재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방학 기간에 어학뿐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학년도 하계방학에 6개국 6개교 자매대학 서머스쿨(Summer School)에 33명의 학생을 파견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Hochschule Osnabruck),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싱가포르 SIM(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카자흐스탄 KIMEP(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Strategic Research), 홍콩 이공대학(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등의 서머스쿨에 학생들을 파견했다.

### 문화·스포츠 교류 연수단 파견

해외 자매대학과의 문화·스포츠 교류협정에 따라 연수단을 파견 및 초청하고 있다. 문화·스포츠 교류 연수단은 학생 동아리 또는 스포츠팀으로 구성된다. 양교는 이들의 교류를 지원해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구성원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1년 11월 문화·스포츠 교류 연수단으로 사진동아리 학생 13명과 인솔자 3명을 일본 자매대학인 리츠메이칸대학에 파견했다. 경희대학교는 리츠메이칸대학과 매년 교대로 문화·스포츠 교류 연수단을 파견 및 초청해왔다.

2011년에는 양교의 사진동아리 학생들이 합동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한국과 일본의 사진촬영 및 현상 등에 대한 다양한 특징과 기법을 교류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다국가 학생 증가에 따른 국제화



정부 초청 외국인(학부·대학원) 장학생과 남미, 아프리카, 중동, 베트남, 몽골, 독립국가연합(CIS) 등 다국가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국적 다양화를 이끌어냈다. 경희대학교는 1996년부터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유치해 국제교육원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마친 후,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2008년부터 매년 아르헨티나 청소년 한국어 연수를 실시해왔다. 2011년에는 아프리카 수단 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학생 및 강사 교류를 약속했다.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경희대학교는 2011년 한국외대와 함께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 진행

단과대학별로 수요 및 학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공 연수, 인턴십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단과대학 자체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비를 지원해 실시하는 이 사업으로 2011년 9개 단과대학에서 총 247명의 학생들이 해외 대학 학술 탐방과 전공 연수 혜택을 누렸다.

문과대학은 중국 연변대학 해외연수 및 학술 탐방 과정에, 호텔관광대학은 일본 그린랜드 리조트의 인턴십 과정에 학생들을 파견했다. 이과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전공 연수 과정과 대만국립대학교의 Faculty-led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정경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전공 연수, 한의과대학은 대만 중국약대학 전공 연수, 경영대학은 프랑스 ISC 전공 연수, 생활과학대학은 프랑스 파리 패션스쿨, 법과대학은 중국 상하이대학교 법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각 단과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 교내기관 토플 시행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토플예상점수를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기관 토플 ITP(TOEFL Institutional Testing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매달 한 번(방학 기간에는 월 2회) 교내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교내기관 토플의 시험 난이도와 방식은 Paper-Based Test와 동일하며, 전 세계 1,500여 개의 기관에서 1년에 약 30만 명이 응시하고 있다. TOEFL 및 GRE 시험을 주관하는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제작해 신뢰성이 높다. 경희대학교는 교내기관 토플을 통해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세계 한인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실시



외교통상부의 ‘2011 세계 한인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를 2011년 7월 26일부터 7일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24개국 18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농어촌 문화를 학습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시내 역사현장과 관광명소 등을 찾아가 현대 한국인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모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갯벌체험·짚풀공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재외동포 대학생과 국내 대학생이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연수 과정에는 국내 대학생 자원봉사자 76명도 참여,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 ‘G20세대 여름캠퍼스’ 개최

‘2011 해외동포 G20세대 여름캠퍼스’가 7월 13일부터 보름 동안 열렸다. 2010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 후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으로 31개국 177명의 해외동포 중·고등학생이 경희대학교를 방문, 한국어와 한국 사 및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또한 이들은 봉사를 실천하며 리더십을 키우고,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교원 초청 연수’ 진행

‘2011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교원 초청 연수’를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일본 현직 교사 등 20명의 연수생은 초·중학교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생활방식과 가족문화를 체험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돼 2011년 연말 과정에서 일본의 자비 학생 수가 2010년 대비 88% 상승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2011년 9월 26일부터 10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몽골,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이집트,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총 11개국 19명의 예비 한국학 전문가들이 한국어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한국어 수업은 물론, 한국의 음식, 예절, 노래, 영화, 태권도 등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경희대학교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KOICA 연수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KOICA 한국어 과정 사후관리 컨퍼런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연수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2011년 12월 KOICA 우수 연수기관에 선정됐다.

###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 운영



2011년 6월부터 6개월간 ‘2011 문화동반자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25개국 56명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했으며, 25개국 54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이루어졌다.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민속촌, 도예마을, 설악산, 정동진 등 현지 학습과 예절, 영화, 노래, 놀이를 통한 한국 문화 수업이 병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동반자사업’은 양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지역에 긍정적인 한류를 형성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시작됐다.

### 제14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제14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2011년 5월 13일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 2011년에 열네 돌을 맞았다.

지난 14년 동안 총 70개국, 5,0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고, 해마다 국내외 대학기관 및 기업의 관심도 높아져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대회에는 서류와 원고심사 등 예심에 36개국 55개 기관 1,134명의 외국인들이 지원했으며, 18개국 21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대회에서 경쟁을 펼쳤다.

대상은 ‘열정적인 한국인들’을 주제로 발표한 리만 이사벨(스위스) 씨가 받았으며, 압둘하디(사우디아라비아) 씨는 특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2010년 9월 정부 초청 장학생 자격으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입학한 박타 프라스드 거이레(네팔) 학생에게 수여됐으며, 그 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창조와 도약

경희대학교가 '하나된 경희'로 새 출발한다.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국제캠퍼스의 통합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전문행정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 전산화를 추진해온 경희는 앞으로 서울·국제·광릉캠퍼스를 통합하는 선진행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통과 공감,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원 복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온 경희는 2011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2위를 차지했다. 11월에는 재정사업본부 거버넌스를 새로 구축,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동문 중심의 소액기부운동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불과 1년 여 만에 2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 행정

### 국가고객만족도(NCSI) 2위



경희대학교가 '2011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순위는 2010년 4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결과다. 경희는 1위인 성균관대의 76점보다 5점 낮은 71점을 얻으며 서강대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도 평가 점수 70점대는 2011년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1위 대학과의 점수 격차는 2009년 10점에서 2010년 7점, 2011년 5점으로 좁혀져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만족도 자체 조사를 시행해 품질 요인별로 결과를 분석했으며 학생의 교육 만족도를 측정,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만족도 제고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강의 활동, 교과 과정, 수강 신청, 강좌 운영, 행정 지원, 장학제도, 홈페이지, 강의실 등 전 분야에서 학생 만족도가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 전문행정 교육체계 확립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행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행정 교육체계를 확립했다. 전문행정 교육은 조직과 구성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직원의 자기주도 학습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계층별 역량에 따른 교육체계를 확립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평가를 통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효과를 측정한다.

2011년에는 신입 직원 교육, CS 교육, 외국어 교육, 전산능력 향상 교육, 사내 강사 육성 교육, 문제결 과정 교육, 기획력 향상 과정 교육 등 기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 자율독서제, 학습조직 운영 등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역량을 키웠다.

전문행정 교육으로 직원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대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 재정전략과 거버넌스 구성 및 사업 추진



재정사업본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11년 11월 1일 재정사업위원회 위원장 겸 재정사업본부장에 최동주(정치외교학 1971)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선임했다. 대학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발전전략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사업본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임 최동주 위원장은 수익사업 창출과 함께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는 상징적 사업인 캠퍼스종합개발을 계획·집행한다.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최동주 위원장은 1978년 현대건설 입사 후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등을 거쳐 현대아이파크를 사장,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역임했다. 한국의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에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과 제12회 한국유통대상 유통혁신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의 유통인상,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및 문서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결재를 포함한 웹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룹웨어 시스템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서류 작성, 결재, 문서 보관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8월 그룹웨어 TF를 구성한 후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AP서버·DB서버·모바일서버 등 시스템 운영 장비를 도입했다.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인터넷·모바일·메신저 등의 화면 디자인 구성 방향을 설정했다. 현재 DB·인터페이스·화면 설계 등 기초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문서 서식을 통일하는 문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구성원 만족도 제고 사업 추진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학 자율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추진했다.

2011년 1월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만족도제고기획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단과대학 중심의 자체 만족도위원회와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단과대학별 만족도 관련 컨설팅과 자체 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만족도제고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 만족도 개선을 위한 8대 선결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8대 선결과제는 교과학습, 실험실습, 문헌정보, 학사행정, 진로지원, 편의시설, 문화홍보, 국제화 등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1년 12월에 발표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다.

###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2012년 3월부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통합 운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8월 24일 경희대학교의 서울·국제캠퍼스 통합을 승인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희대학교는 학문단위 이전과 통폐합을 통해 캠퍼스 간 중복학과를 하나로 정리하는 등 지속적인 편제 개편으로 '하나의 캠퍼스'를 추진해왔다. 1999년부터 체육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영학부 등 학문단위를 이전 또는 통폐합해 양 캠퍼스의 중복학과를 하나로 통합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순수예술 등 순수학문을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응용과학, 국제화, 현대예술·체육 등 응용학문 위주로 특성화했다.

2005년에는 캠퍼스 간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2006년에는 입시요강을 단일화했다. 2007년 기존 수원캠퍼스의 명칭을 현재의 국제캠퍼스로 변경하고, 양 캠퍼스를 통합하는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졸업장 표시와 학교코드가 다르지 않고, 재정의 예·결산을 통합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교 운영과는 달리, 국제캠퍼스가 법적으로는 분교 형태로 인가됐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돼왔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 6월 21일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서울·국제캠퍼스 통합승인신청서를 7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8월 통합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심의 통과로 국제캠퍼스는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교가

아닌 캠퍼스임을 인정받았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서울·국제캠퍼스 통합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제 개편이나 정원 조정은 이뤄지지 않으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

서울·국제캠퍼스 통합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통합적 교육·연구 공간이 형성됨에 따라 학문 간 융복합 및 교류 확대는 물론, 행정·복지의 효율성 증가, 예산 절감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 억제, 학점 교류와 전과제도 활성화 등 교무행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희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춘 기획위원회 사무국장은 “캠퍼스 통합과 특성화는 캠퍼스를 단순히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희가 대학다운 미래대학, 세계 정상 대학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핵심가치 중심의 대학 위상 강화체계 개선



2011년 10월 핵심가치 중심의 대학 위상 강화체계 개선을 위한 ‘평가대응체계 개선 TF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구성원들은 경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추진 방법을 논의했다. 평가대응체계 개선 TF는 대학본부는 물론, 실무 부서, 단과대학 등 실행 주체가 모두 참여해 경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워크숍에서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 아래 경희의 핵심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전 구성원이 목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워크숍 이후 10월 말부터 평가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경희대학교는 대학의 핵심가치를 추구하면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영역별 수월성 제고 전략 및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핵심가치 중심의 대학 위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실현 방안으로, 자율기관의 단위별 개선 수준과 목표를 정한 뒤 조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 차원의 종합전략과 각 자율기관의 발전계획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O&P Review 개선

단위부서의 업무 성과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Organization & Program(O&P) Review를 개선했다. O&P Review는 151개 단위부서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 구성원 만족도 평가, 교육과정 품질 평가(단과대학만 해당),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관리 시스템이다. 경희대학교는 자율운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10년 O&P Review를 도입하고 수차례 평가 과정을 거쳤다.

2011년 3월에는 O&P Review 개선안을 논의하고, 5월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6월에는 시행에 따른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7월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9월 설명회를 개



최한 뒤 10월부터 O&P Review를 실시했다.

O&P Review를 통해 자율운영제도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물론, 발전계획 추진 성과,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단과대학의 역량을 제고하고 중앙부서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

### 자율운영 지원체제 구축

‘대학거버넌스(안)’이 2011년 3월 18일 합동교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세계적 명문대학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접목시키고, 자율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대학거버넌스(안)에 따르면,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한다. 총장실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고, 전문행정·자율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 국제, 의무, 재정, 대외협력 부총장은 거교적 비전에 따른 영역별 행정 업무를 책임지며, 각 단위부서의 자율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단기적 성과검토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성과에 따른 중장기 책임 환경을 조성해 책임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대학(원)장은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 해당 대학(원)의 학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거버넌스(안)은 부총장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대학(원)을 비롯한 각 단위부서의 자율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체직원연찬회 개최 “대학다운 미래대학, 전문행정과 자아실현”



‘2011학년도 전체직원연찬회 - Embrace 2011’이 12월 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조인원 총장과 김정만 서울부총장 등 서울·국제캠퍼스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찬회 주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전문행정과 자아실현’이었다. 행사는 발표와 토론, 라운드테이블, 총장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경희의 자긍심, 자존감, 미래에 대한 포부를 키워 2049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경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되새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이하 미래협약)과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경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별 토론에서 전 직원은 미래대학을 위한 전문행정 실현과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이후 ‘하나된 경희’를 위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박경규 노동조합위원장, 김미혜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장 등 6명의 직원이 패널로 참여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행정 전문화, 하나의 경희가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1학년도 전체직원연찬회는 전문행정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대해 조인원 총장과 300여 명의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하는 ‘총장과의 대화’로 마무리됐다.

## 복지

### 복지시설 개선 TF 구성 및 운영

2011년 9월 'Space 21 구성원 복지시설 개선 TF'가 구성됐다. 복지시설 개선 TF는 학내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획·관리한다. 아울러 복지시설을 검토하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교적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전 구성원의 복지시설 요구에 대응하고 해결한다.

복지시설 개선 TF는 재정부총장이 총괄하고, 서울·국제·Space 21 TF 분과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총장과 각 분과장인 서울·국제캠퍼스 사무처장, 건설사업단장은 학생지원처장, 학생대표, 교수의회,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거교적 복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한다.

거교적 복지시설 개선사업은 식당·편의시설 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과 구성원의 보행환경·동선·이동거리 및 수단 개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디자인 및 시설·기자재 구비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장학 원스톱 서비스 포털 구축



장학제도와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 장학 포털 사이트(이하 장학포털)'를 새롭게 구축했다.

장학포털을 구축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타 대학 사례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 경희대학교는 장학포털 구축의 3가지 방향을 도출했다. 접근성(Easy to access)과 연동성(User Interface), 간결성(Easy to understand)이다. 대학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장학포털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장학정보를 종류별로 세분화하고 교내외 각종 장학 사이트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또 장학종류와 기준에 대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 학생들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이용자는 장학포털을 통해 교내외 모든 장학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외부 장학재단 사이트와의 연동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장학, 학자금 용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서울캠퍼스,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모자이크장학' 시행

서울캠퍼스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장학제도인 '모자이크장학'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장학제도는 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설된 모자이크장학은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거나 개인의 역량 강화에 진전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모자이크장학은 학업 역량, 사회봉사 역량, 국제화 역량, 기타 역량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뉜다. 학업 역량은 교내외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우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사회봉사 역량은 교내 또는 국내외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국제화 역량은 토익·토플 등 외국어 시험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 기타 역량은 특별재해 선포 지역의 직접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최소 20만 포인트 이상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인정된다. 모자이크장학은 다른 장학과의 이중수해도 가능하다. 단, 취득 포인트는 매 학년도가 끝나면 사라지며, 재학 중 2회 이상 받을 수 없다.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모자이크장학은 2010년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 2011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포인트 장학제도'다. 경기권에서는 한신대학교와 한세대학교가 '포인트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권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처음이다. 많은 대학에서 포인트 장학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운영 방식이 복잡한 데다 관련 예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지원처 장학팀 관계자는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희의 사회공헌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교내식당 개선 방안 연구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내식당 개선 TF'를 구성했다. 교내식당 개선 TF는 서울부총장을 총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학생분과와 교직원분과를 운영, 2011년 9월부터 3개월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학생분과는 서울과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처, 서울캠퍼스 관리팀,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주축으로 구성돼 초기 시설투자와 향후 식당 오픈을 위한 일정, 학생식당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분과는 교내식당 개선 TF 구성에 앞서 2011년 4~5월 별도의 TF를 운영, 타 대학 학생식당을 벤치마킹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학생회, 생협과 논의했다.

한편 서울과 국제캠퍼스 사무처, 서울캠퍼스 교무처, 서울캠퍼스 관리팀, 교수의회, 노동조합, 생협이 소속된 교직원분과는 타 대학 교직원식당에 대한 벤치마킹 방법을 논의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교내식당 개선 TF는 11월 21일, 서울캠퍼스 청운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운영계획 및 개선안과 재정사업위원회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12년 3월 청운관 식당 재오픈이 결정됐다. 식당 운영은 외부업체 임대 방식에서 생협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메뉴와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구성원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푸드코트 형태로 한식, 양식, 일품, 분식, 특식 등 5개 코너를 상설 운영하고, 유학생과 채식주의자를 배려한 식단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격은 학생식당의 경우 2,300~3,500원으로 다양화하고, 교직원식당은 가격 유지를 검토하되 메뉴의 다양화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최대 5,0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 공사를 통해 카페, 열람실 등을 배치함으로써 단순한 식당 개념을 탈피한 복합 식음공간 및 생활문화공간 창출 방안도 제시됐다.

교내식당 개선사업 소요 예산은 후생복지기금(생협 조성분) 3억 원, 교비 10억 원 등 총 13억 원

을 책정하고, 기존 외부 위탁업체와 기기 및 기자재 기부채납 등을 논의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향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모니터링위원회와 메뉴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학내 행사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내식당 개선 TF 구성은 외부업체가 위탁 운영해온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의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직영 학생식당'을 요구했으며, 대학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경희대학교는 타 대학의 학생식당을 탐방한 '학식원정대'와 총학생회(인권복지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청운관 식당을 개선하고, 2012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

#### 복지카드 시행

경희대학교는 단체협약에 의거해 2009년부터 정규직 직원의 연차수당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발전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적립해왔다. 최근 3년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2011년에 '친가족형 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직원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다. 2011년 1월 직원복지후생기금 운영 방법 TF를 구성하고, 8월 직원복지후생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유관부서 및 노동조합 협의 및 논의를 거쳐 12월 초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협약 체결 및 세부시행(안)을 수립했다. 12월 말에는 복지카드를 배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카드 사용 대상은 서울·국제캠퍼스 정규직 직원이며, 적립금은 매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교육 인프라

###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 추진



캠퍼스 마스터플랜 'Space 21'은 경희의 미래를 상징하는 청사진이다. 21세기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공간이 요구된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I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예술적 가치를 지닌 친환경 공간 조성도 세계적 명문의 조건 중 하나다. 경희대학교 캠퍼스종합개발계획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교적 사업이다.

2010년 5월 캠퍼스종합개발 1단계 사업안이 제안될 당시, 'Space 21'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5년간 약 4,037억 원(서울 2,240억 원, 국제 1,79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획됐다. 사업 방식도 민간 사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이었다.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재정 조달 방안과 금융 등 계약조건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같은 지적에 따라 2010년 9월 건축·법률·금융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재정전략 TF'를 구성했다.

2011년 2월 '재정전략 TF'는 대학의 운용 가능 재원을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업비를 약 30% 조정해 2,783억 원(서울 1,333억 원, 국제 1,450억 원)으로 수정했다. 사업 방식도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혼용하기로 했다. 1차 수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1,500억 원의 은행 차입(기채)을 요청했다. 이는 등록금이 건설비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기채 승인이 나지 않아 또 한 차례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졌다.

2차 수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사업비를 1,540억 원(서울 750억 원, 국제 790억 원)으로 조정하고, 교과부의 기채 승인 한도(500억 원)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동시에,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2차 수정안은 당초의 계획안에 비해 사업비를 약 60% 절감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스터플랜의 취지와 구성원과의 합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부대시설 및 토목 면적을 축소하되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충한다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평화의 전당 안전점검 및 진단 시행

1999년 10월 준공된 평화의 전당 건물 및 무대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했다. 2011년 12월 5일부터 시작된 도면 검토와 현장조사에 이어,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구조 검토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2012년 1월에 발표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의 전당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무용학부관,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옛 복지회관 자리에 신축된 무용학부관이 제2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밀집해 있는 기존 건물들 사이에 조화롭게 자리 잡은 점, 지형상 제약 조건이 많음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소통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점, 건축물의 완성도 및 건물



내부의 스토리 구성이 뛰어난 점 등을 최우수상 선정 이유로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예술적 가치와 기술 수준이 뛰어나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한 건축물에 수여되는 상이다.

무용학부관은 경희대학교 캠퍼스 건물 중에서 권위 있는 건축상을 받은 최초의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는 상징적 사업인 캠퍼스종합개발 'Space 21'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캠퍼스종합개발 사업부지로 서울캠퍼스 정문과 대운동장 일대가 선정된 후 네오르네상스관 철거 계획(현재는 캠퍼스종합개발계획 수정으로 유지)에 따른 대체공간이 필요했다. 그 대체공간이 무용학부관이다.

2008년 12월 신축에 착수,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2011년 1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7,276㎡ 규모로 완공됐다. 경희대학교의 다른 건물과 외관은 다르지만, 경희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었다.

무용학부관을 설계한 이두열(건축학 1977) 교수는 "무용학부관 건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개념이 아니라, 이용자를 고려한 기능과 위치적 특성은 물론, 경희의 60년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캠퍼스종합개발에 대한 실험적 가치를 아우르는 작업이었다"라고 말했다.

### 교수학습지원센터, 무인강의 촬영 시스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11년에 첨단 무인강의 촬영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 교육 수월성과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강의 공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경희대학교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넘어,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창조하고 있다. 12월까지 호텔관광대학, 이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한의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등 10개 단과대학 강의실에 무인강의 촬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인강의 촬영 시스템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학습포드폴리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복습 효과를 높이고 영어 강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에 새로 포함된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 울산대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의 공개 실적이 많은 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경희의료원 잔디광장 조성, 건강의 여신상 제막



경희의료원 앞에 새로 조성된 잔디광장이 개원 40주년에 맞춰 '건강의 여신상'과 함께 일반에 공개됐다. 잔디광장과 건강의 여신상은 '환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인류를 보듬는다'는 경희의료원의 의지와 미래상을 표현한다.

201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후, 잔디광장 준공식과 건강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인원 총장, 유명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윤호 서울캠퍼스 총학 생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희대학교 음대 강봉수 교수(테너), 김현신 교수(소프라노)가 음대 재학생들의 연주에 축가를 불렀다.

## 대학문화

### 목련회의 · 목련예술제 개최



2011년 한 해 동안 경희가 이뤄낸 성장과 도약을 되돌아보는 경희대학교 송년회 ‘매그놀리아 (Magnolia) 2011’이 12월 21일 경희 구성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매그놀리아 2011’은 1부 목련회의와 2부 목련예술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경희의 오늘을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전망한 ‘리뷰(Review) 2011 - ‘학문과 평화’의 양 날개로 도약하다’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진행된 목련상 시상식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 도정일 대학장이 교육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실천 부문은 기획위원회 조병춘 사무국장과 최부영 농구감독이 수상했다. 목련상은 경희가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서, 교육, 연구, 실천 세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계속해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이하 Global Eminence 2020) 경과보고와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조인식이 진행됐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길, 문명의 길을 성찰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은 경희가 안아야 할 책무”라고 밝히고, “경희 특유의 가치와 전략이 담긴 ‘Global Eminence 2020’과 그 윤리적 토대를 이룬 ‘미래협약’이 그런 노력의 중심에 섰으면 한다”라며 담대한 경희의 세계를 향한 희망찬 도전의 성공을 기원했다.

2부 목련예술제는 ‘역경을 넘어 오늘을 넘어’를 주제로 한 크로스오버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구성됐다. 지역사회와 함께 경희의 문화예술을 나누고, 미래의 희망을 공유했다. ‘매그놀리아 2011’은 경희의 전 구성원이 도전과 성취의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경희대학교의 송년 행사로, 2009년에 처음 열렸다.

### ‘경희구성원 미래협약’ 체결



소통과 화합의 대학문화를 재정립해 ‘더 나은 공동체,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희구성원 간의 약속인 ‘경희구성원 미래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 3월 22일 등록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미래협약은 12월 21일 열린 ‘매그놀리아 (Magnolia) 2011’의 1부 목련회의에서 대학, 교수, 직원, 학생대표가 서명함으로써 공표됐다.

각 구성원 대표로 조인원 총장, 김정만 서울부총장, 변정우 교수회의 의장, 박경규 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찬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상근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함주호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서명했다.

### 영문 홈페이지 개편

영문 홈페이지 운영 업무가 2011년 4월부터 출판문화원으로 이관돼, 홈페이지 개편이 진행 중이다. 경희는 영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외국인 학생과 교원, 해외 방문자 등 외국인 대상 콘텐츠를 보완하고, 온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5월부터 세계 대학 평판도, 외국인 학생 및 교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콘텐츠를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했다. 또한 메뉴를 간결하게 다듬고, 초기화면 디자인을 개선했다. 이후, 콘텐츠 및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새롭게 구축된 영문 홈페이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 매그놀리아 스토리 발전기금 20억 원 모금



대외협력처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 ‘매그놀리아 스토리(Magnolia Story)’는 경희사랑의 마음을 엮어 서로 돕고 보살피는 ‘작은 나눔’ 실천운동이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2010년 10월 31일 홈페이지가 오픈된 이래 2011년 12월 31일까지 1,741명이 참여해 20억 8,000여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캠페인 참가자는 장학기금 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 그리고 사회봉사기금 중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학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선배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후배는 다시 미래의 후배에게 기부할 것을 약속해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장학기금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 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GSC) 활동,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사이에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부 문화가 자리 잡게 됐을 뿐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한 재원 마련이 활기를 띠게 됐다. 기부 신청은 매그놀리아 스토리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할 수 있다.

##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 출범



2011년 5월 16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가 출범했다. 이날 등록금연구TF 1차 회의에 앞서 교수 대표 3명, 직원 대표 4명, 학생 대표 4명, 외부 전문가 2명, 간사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조인원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내 전 구성원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등록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 대학 최초의 일이다.

당초 등록금책임·심의위원회는 ‘소통과 창조’의 대학 운영기조에 따라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단, 이미 납부된 인상분 중 2%는 환급하되 1%는 형편이 어려운 학내 구성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내 각 언론으로부터 ‘아름다운 합의’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등록금 책정 논의 과정에서 경희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외부 전문가까지 참가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등록금을 둘러싼 구성원 간의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과 공생의 대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록금 제도 개선 연구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갈등 양상을 보여왔지만, 현재 시민사회, 정부 등 다자간의 갈등관계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조인원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내로는 학생 및 학부모, 대학, 교직원 등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

또는 공립 대학교에 편중된 교육예산 지원을 사립대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시민 사회에서는 세금의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다자간의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등록금 공개 토론회 개최



2011년 3월 22일 국내 최초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 그리고 사회, 등록금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는 오택열 국제부총장, 조병춘 기획위원회 사무국장,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 이윤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찬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6명의 토론자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행을 맡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김중원 위원장은 “등록금 협상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논의’는 없고 학생과 학교 모두 상처받고 지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문제 해법은 한결같았다. 요약하면,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현실에서, “사립대학들이 재정의 70%를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법은 간단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정치·경제적 이해와 얽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등록금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 음악대학,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 – 호프만의 이야기’ 공연



음악대학이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의 2011년 마지막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공연작은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1819~1880)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였다.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은 예술의 전당과 각 대학이 국내 오페라계를 이끌 신진 음악가를 발굴·육성하고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3년 동안 총 9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행사다. 경희대학교 공연은 2011년 9월 7일부터 3일간 계속됐다. 40여 명의 성악과 학생, 200여 명으로 구성된 경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매회 2시간 30분 동안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호프만의 이야기〉는 240여 명의 학생과 총감독을 맡은 성악과 박순복 학과장, 공연을 연출한 장영아 교수, 학생 지도를 담당한 강명숙·강형규·이아경 교수 등이 6개월 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과다.

3월 오디션을 시작으로, 프랑스어 디션(Diction), 음악 트레이닝, 작품 분석, 액팅 연습을 위해 교수와 학생들은 여름방학까지 반납했다. 장영아 교수는 “원작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학생들과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힘들지만 재미있는 작업이었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학생 공연의 수준을 뛰어넘는 프로페셔널한 공연을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프만 역을 맡은 박세용(성악과 2010) 학생은 “어려운 작품을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전했다.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졸업생 37명 기부 약정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졸업생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졌다. 2008년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졸업한 이승직 동문이 1개월에 1만 원씩을 향후 30년간 모교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30년간 기부할 금액은 360만 원으로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액수다. 이 나눔에 2011년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전체 졸업생의 60%에 해당되는 37명이 함께했다. 37명이 약정한 기부금 총액은 1억 3,320만 원에 달한다.

기부 약정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박규창 교수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개설 첫 해인 2004년 “졸업 후에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부의 4대 원칙은 귀찮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기부자가 행복해야 하고, 기부자가 학교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가능하다”며 “학교로부터 받은 혜택을 졸업한 후 후배들을 위해 돌려주자는 취지에 많은 졸업생들이 동참해서 이번 기부 약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후배들의 장학금과 해당 학과의 연구진흥기금 등으로 운용되며,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기부운동을 매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TEDxKyungHee’ 개최



6월 4일 경희대학교의 첫 번째 TEDx 이벤트가 열렸다. TED는 1984년,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라는 슬로건 아래 기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등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데서 시작된 비영리단체다.

‘感覺을 [ ]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TEDxKyungHee’는 11명의 경희대학교 학생 주도로 기획됐다. PR 매니저 이해준 학생은 “차별화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 경희의 창학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TED의 모토를 융합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TEDxKyungHee에는 2010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 이인세 씨, 미술랭 3성급 레스토랑 출신의 올리비아 리 셰프, 이현욱 광장건축소장 등 7명의 연사가 무대에 올랐다. 초청 연사들은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인 감각에 대한 7가지 독창적 아이디어를 청중들에게 들려줬다.

###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장서 100만 권 돌파 기념 문화행사’ 개최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100만 권째 장서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인 <인간의 가치 탐색-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1>을 선정하고, 2011년 5월 23~24일 이틀간 ‘장서 100만 권 돌파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동문 작가와의 만남, 신명 나는 국악 공연, 세계 다양한 종류의 책갈피 전시를 비롯해 교수 및 동문 작가의 다양한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23일 중앙도서관 3층 피스홀에서 열린 ‘동문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의 정호승 시인이 강연자로 초청돼 저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의 구절과 시를 낭독했다. 정호승 시인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서 그럴 때 삶에 힘과 용기, 희망을 심어주는 따뜻한 문장들을 소개했다. 행사 기간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세계 책갈피 전시회’와 ‘경희가족 저작물 전시회’ 등은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정박물관, '아름다운 세계-고지도'展 개최**



해정박물관이 제15회 고지도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세계-고지도'展을 열고, 철학과 신화의 전통을 담은 세계지도, 탐험과 교류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항해지도 및 대륙지도 등 각종 동서양 고지도 60여 점을 선보였다. 특별전은 2011년 5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속됐다. 전시회에서는 세계지도, 항해지도 및 대륙지도 외에도 중세 유럽 도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도시지도, 별자리의 모습과 천체물리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천문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고지도가 전시됐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 지도를 비롯해 강화도 군현도와 탐라지도 등을 국내 최초로 공개, 우리나라 고지도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정박물관, '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展 개최**

해정박물관이 2011년 7월 9일부터 7일간 몽골국립현대아트갤러리에서 '한·몽 수교 21주년 기념전-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展을 개최했다. 전시 기간 동안 몽골 국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현지 몽골인, 유학생 등 2,000여 명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전시회에서는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는 몽골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주는 관련 고지도 10점이 공개됐다. 아울러 해정박물관이 소장한 한국의 역사와 동해 표기 관련 고지도 40여 점과 한국의 자연과 풍경을 소개하는 자료 10여 점이 전시됐다.

**'2011 경희 외국인 한마당' 개최**



5월 12일 '2011 경희 외국인 한마당'이 열려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교류의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이 행사는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롯해 외국인 교원 등 1,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음식축제, 경희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계음식축제에서는 코스타리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멕시코 등지에서 온 한국어 과정 재학생들이 자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참가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경희 외국인 한마당'은 세계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경희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였다.

**'폴란드 현대 판화전' 개최**

2011년 9월 2~20일 국제캠퍼스에서 '폴란드 현대 판화전'이 개최됐다. 예술·디자인대학과 폴란드 국립예술디자인대학교-브로츠와프(The Eugeniusz Geppert Academy of Fine Art and Design in Wroclaw)가 공동주최한 전시회에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97명의 작품 250여 점이 국내 최초로 소개됐다. '폴란드 현대 판화전'은 2008년부터 경희대학교와 폴란드 국립예술디자인대학교-브로츠와프 간의 학술·문화교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회다.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은 9월 2일 A&D 갤러리에서 '폴란드 현대 판화전'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오택열 국제부총장, 제크 스키위작 폴란드 국립예술디자인대학-브로츠와프 총장,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jka) 주한 폴란드 대사, 김규현 예술·디자인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경희대학교와 폴란드 국립예술디자인대학-브로츠와프는 지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 전진하는 경희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대학

#### 2007년 이후 259계단 상승, 평가 대상 대학 중 이례적인 성장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QS 세계대학평가 분석 결과 경희대학교가 259계단 뛰어올라 평가 대상 대학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뒤를 이은 미국 예시바대학교(Yeshiva University)의 상승폭인 198위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순위는 2007년 504위, 2008년 484위, 2009년 374위, 2010년 345위였다. 2011년에는 2010년보다 100계단 오른 245위를 차지했다.

#### 2011 QS 세계대학평가 245위, 국내 대학 6위

2011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10년보다 100계단 상승한 245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전체 6위, 사립 종합대학 3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에 처음으로 세계 200권에 진입했다.

2011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대학교는 특히 연구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학계 평가에서 2010년보다 185계단 오른 231위를 차지했다. 교수당 논문 피인용 수도 약 200계단 상승했다. 학문 분야별로는 2010년에 약세였던 '생명과학·의학(Life Science & Medicine)' 분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5개 학문 분야별 학계 평판도가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생명과학·의학 분야는 2010년 400위권에서 2011년 109위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졸업생 평판도에서도 괄목할 만한 순위 상승이 있었다. 2010년보다 289계단 상승한 247위에 올랐다. 그간 경희대학교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던 교수당 학생 수, 외국인 교원 및 학생 비율 등 정량지표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순위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경희대학교의 순위 상승을 이끈 주요 지표가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순위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1 QS 아시아대학평가 42위, 국내 대학 7위

2011년 5월 22일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2010년보다 20계단 오른 42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국내 대학 7위로, 2010년 실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QS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경희대학교는 국내 7위(세계 345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학계 평판도에서 2010년(97위)에 비해 47계단 수직 상승한 50위를 차지, 전 세계 학계가 경희대학교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 동안 국내외 석학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연구 수월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2011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주목할 것은 대학의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출범시킨 경희대학교의 인문학 분야의 약진이다. 학계 평판도 평가 항목 중 인문·예술 분야에서 경희대학교는 2010년 67위에서 2011년 22위(국내 4위)로 45계단 뛰어올랐다. 이는 실용적 전공 교육에 치우쳐 있는 국내 대학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인문학에 기초한 통섭적 교양을 강조하는 경희의 교육철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국내 대학평가 상위권 다져

###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7위, 국제화 부문 공동 1위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희대학교는 2010년에 이어 종합 7위의 자리를 지켰다. 점수는 350점 만점에 239점이었다. 공동 5위인 고려대·성균관대(245점)와의 점수 차이를 좁혔고, 내용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국제화 부문에서 경희대학교는 한국외대와 공동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일보가 국제화 부문 평가를 시작한 2006년 이후 한국외대는 국제화 부문 1위를 줄곧 지켜왔다. 경희대학교는 2009년 5위, 2010년 3위였다. 한편, 경희대학교는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국제화 부문 아시아 12위(국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제화 부문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경희대학교는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전체 재학생의 9.6%)과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에서 1위에 올랐다. 현재 6,800여 명의 학생이 해외 37개국, 195개 대학에 파견돼 있다(2011년 1학기 기준). 경희대학교는 교환학생 파견 외에도 해외 단기연수, 복수학위제도(Dual Degree), 학점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 7위의 자리를 2년 연속해서 지킨 것은, 경희대학교가 지난 5년간 교육·연구에 집중 투자해온 노력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한다. 과거 경희대학교의 종합 순위는 2008년 10위, 2009년 8위였다.



### 2011 중앙일보 학과평가, 경제·사학·영미어학(국제)·철학과 '최우수' 선정

2011 중앙일보 학과평가에서 경희대학교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가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경제, 사학, 영미어학(국제), 철학과 등이다. 인문·사회계열 9개 학과 대상으로 실시된 이 평가에서 4개 학과가 최상위권에 오른 것은 전국 123개 4년제 대학 중 경희대학교가 유일하다. 특히 국제캠퍼스 영미어학부는 지역 캠퍼스 중에서 유일하게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영미어학부는 영어권 국제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토리텔링, 캐릭터 연구, 공연예술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논문 분야 4가지 평가 영역에서도 모두 5위 안에 들어 활발한 연구 성과가 반영됐다. 최상위권 대학은 해당 학과가 운영되는 전국 대학 중 교육환경, 교수연구, 장학금, 취업률 등 12개 항목의 종합 점수가 상위 2.28%에 드는 대학을 말한다.

경희대학교는 교수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경제학과는 전임교수 1인당 연간 2,590만 원의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내 80개 대학 경제학과 중 1위를 차지했다. 철학과에 대한 교내 연

구비 지원도 교수 1인당 4,450만 원으로 45개 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균태 정경대학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과대 지원을 늘리고 자율성을 확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42개 대학(원)·부속기관의 자율운영 체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대학본부에 집중돼 있던 권한도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에 단계적으로 이양 중이다. 자율운영 체제는 각각의 자율운영기관이 새롭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 아래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선진적 행정 시스템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 지원제도를 도입해 연구 분위기를 고취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교수당 국내 논문 게재 수는 2007년 0.75편에서 2011년 1.46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 2011 의학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2011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경희대학교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가 입증됐다.

의학교육인증평가는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대학 운영체제, 교육 목표 및 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관련 75개 항목(필수 41개, 권장 34개)에 걸쳐 평가가 실시된다.

### 체육부 연이은 선전



### 2011 대학농구리그 통합우승

농구부가 12월 2일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챔피언결정(3전 2선승제) 2차전에서 연세대를 65-62로 몰리치며 대학농구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는 정규리그 22승, 플레이오프 2승, 챔피언 결정전 2승 등 26연승을 거두며 대학농구리그 통산 최다 연승을 기록했다. 종전까지는 2010년에 중앙대가 세운 25연승이 최고 기록이었다. 경희대학교 농구부는 2011년에 대학농구리그뿐 아니라 MBC배(5승), 전국체육대회(3승)를 제패해 34연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대학농구리그 ‘마지막 승부’는 박빙이었다. 경희대학교는 전반 34-24로 연세대에 앞선 경기를 펼쳤으나 3쿼터 후반 연세대의 거센 반격에 흔들렸다. 4쿼터 경기 종료 4분 40초를 남기고 58-58로 동점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경기 종료 1분 전 김민구(스포츠지도학 2010) 학생이 연속 4점을 터뜨리며 승리를 굳혔다. 이번 경기에서는 박래훈(스포츠지도학 2008, 주장), 배병준(스포츠지도학 2009), 두경민(스포츠지도학 2010) 학생 등의 활약 또한 돋보였다.

경희대학교 농구부를 국내 최강 팀으로 조련한 최부영 감독의 별명은 ‘악바리’다.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높이’의 열세를 이겨낸 최부영 감독의 리더십은 ‘신뢰와 자기희생, 팀에 대한 공헌과 창의성’을 축독한 훈련으로 체득하게 만들었다. 몸을 통한 정신 훈련이었다. 최부영 감독은 평소 경기에 임하기 전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선수들 개인의 목표치와 각오, 상대팀에 대한 분



석 등을 담은 리포트 제출을 주문해왔다. 챔피언 결정전 전날에도 농구부 선수들은 모두 리포트를 작성했다. 그들의 리포트를 빠짐없이 읽었다는 최 감독은 “경기에 대한 학생들의 자세가 상당히 진지하고 상대팀에 대한 분석도 잘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쉽지 않은 챔피언 결정전이었지만 선수들의 생각과 각오가 상당히 적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나상욱 학생, 211번 도전 끝 감동의 우승

나상욱(골프경영학 2010) 학생이 PGA 투어 211번째 경기만에 감동의 첫 우승컵을 안았다. 나상욱 학생은 2011년 10월 3일(한국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서머린 TPC에서 열린 PGA 투어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함께 23언더파 261타로 함께 21언더파 263타를 기록한 닉 와트니(미국) 선수를 2타차로 제치고 첫 우승을 거뒀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은 PGA 투어 ‘가을 시리즈’의 첫 대회로, 전 세계 골퍼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회였다. 나상욱 학생의 우승으로 한국은 남자 골프 역사상 최경주와 양용은의 뒤를 잇는 세 번째 PGA 챔피언을 두게 됐다.

### 야구부, 2년 만에 경기도협회장기 대학야구 패권

야구부가 제3회 경기도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에서 2년 만에 우승기를 탈환했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 5월 26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7회말 조재민(스포츠지도학 2008) 학생의 결승타에 힘입어 세계사이버대에 3-2로 승리했다. 2009년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뒤 2010년에 중앙대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경희대학교는 2년 만에 우승기를 되찾았다.



### 정다소미 학생, 양궁 월드컵 대회 개인전·단체전 2관왕

양궁 국가대표 정다소미(스포츠지도학 2009) 학생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2011 국제양궁연맹(FIFA)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정다소미 학생은 6월 11일 치러진 개인전 결승에서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선수를 세트 스코어 6-4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튿날 한국여자대표팀(정다소미, 기보배, 한경희)은 단체전 결승에서 미국을 207-19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다소미 학생은 2011년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새내기로, 5월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월드컵 1차 대회 전까지는 변변한 국제대회 경험도 없는 무명 선수였다. 그러나 한국 여자대표팀 에이스 기보배 선수를 꺾고 2관왕을 차지, 세계 양궁계의 새로운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 핸드볼부, 제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남자대학부 정상

핸드볼부가 2011년 7월 26일 열린 제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서 남자대학부 우승을 거뒀다. 풀리그전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경희대학교는 강원대학교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24-21로 승리, 최종 결과 3승 1무로 우승했다.

핸드볼부 김만호 감독은 “오랜만에 얻은 우승의 영광을 고생한 선수들에게 돌린다”며 “앞으로 핸드볼 최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회에서 김동철 학생(스포츠지도학 2008)과 허영철 코치는 각각 최우수선수상과 지도자상을 받았다.

### MBC 다큐멘터리 프라임,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양교육 보도

2011년 5월 17일 밤 12시 30분, MBC 다큐멘터리 프라임(이하 MBC 프라임)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의 교양교육 혁신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MBC 프라임은 세계적 명문대학들의 교육 혁신 사례를 보도하면서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서울대학교의 고전 100선 읽기 모임에 주목했다. 또한 뉴욕에서 강의를 제작되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교양 과목을 소개하며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미래대학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더 나은 인간을 위한 대학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에 대한 지구적 석학들의 제언들도 간략히 소개했다. 세계적 사상가인 시카고대학 마사 너스봄 교수와 프랑스의 릭 페리 사회분석위원회 위원장, 조지 하닷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 등은 더 나은 인간을 위한 대학의 실천적 책임을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MBC 프라임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만,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타인, 더 나은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 그런 가운데 건강한 시민사회 문화와 지구공동체를 함께 일구어나가는 것이 대학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원 총장은 특히 21세기 문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대학의 과제를 다룬 후반부 결론에서 조인원 총장은 기아와 질병, 기후변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구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실천적 역량이 ‘나와 우리의 문제’라고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풀어가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인원 총장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적인 기반, 학문적 기반, 실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대학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BC 프라임은 세계적 명문대학의 교육 현장 취재 및 지구적 석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대학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더 큰 배움을 제공하는 교육·연구기관”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제시했다. 그것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교육 목표와 일치한다.

### 학생 수상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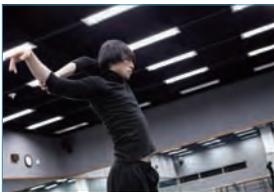
#### 오승현 학생,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의과대학 오승현(의학 2005) 학생이 ‘제75회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2011년 1월 7~8일 이틀간 실시된 시험에서 오승현 학생은 490점 만점에 444.5점을 받아 전체 응시자



3,376명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했다. 2011년 평균 합격률은 91.7%, 경희대학교의 합격률은 의과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합쳐 94.22%이다. 서울의대(82.8%), 연세의대(88.8%), 고려 의대(92.6%)보다 높은 수치이며 특히 의전원은 100% 전원 합격했다.

오승현 학생은 수석 합격의 비결로 경희의대의 뛰어난 실기 교육을 꼽았다. 실기가 의사국가시험에 포함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 대학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경희의대는 2011년부터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진병철 학생, 제11회 헬라스 국제무용콩쿠르 1위

진병철(대학원 무용학과 2기) 학생이 2011년 5월 제41회 동아무용콩쿠르 본선 대회에서 일반부 현대무용 남자 부문 금상 및 전체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7월 그리스 헬라스에서 열린 제11회 헬라스 국제무용콩쿠르(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Hellas 2011) 현대무용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한국·미국·중국·독일·포르투갈·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출전한 35명의 무용수 중 최고 득점을 획득했다.

헬라스 국제무용콩쿠르는 독일의 단츠 올림픽과 함께 현대무용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힌다.



### 배규진 학생, 제9회 농심 면요리왕 선발대회 대상

배규진(조리·서비스경영학 2008) 학생이 '면요리왕'에 등극했다. 2011년 5월 14일 쌀국수와 전국 특산물을 접목해 면요리 작품을 출품하는 콘셉트로 개최된 제9회 농심 면요리왕 선발대회에서 배규진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진출한 60명의 참가자가 선보인 요리 가운데 배규진 학생의 작품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단일 메뉴를 출품했지만 그는 차별화된 코스 요리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대회 주제인 '쌀국수와 지역 특산물의 조화'가 단연 돋보였다. 조리·서비스경영학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고, 경영학 공부도 병행한 배규진 학생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요리 외에도 대회의 콘셉트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등 경영학적 접근을 시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 이다숨·최유리·이경섭 학생, 제15회 대학생주택건축대전 대상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숨, 최유리, 이경섭 학생의 작품 'Mixed Lifestyle on the Gradation'이 LH공사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생주택건축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 건축대전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도시 집합주택'을 주제로, 새로운 주거단지 개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사위원회는 "Mixed Lifestyle on the Gradation은 경사지 활용 및 커뮤니티 시설 배치가 탁월하게 계획돼 실용성이 높고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 김유희 학생 외 4인, 제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대상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산림청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대상(농림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수상자는 김유희, 김수지, 배혜림, 백지현, 이소희(환경조경디자인학 2008) 학생이다. 이들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곳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심사위원들은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전주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기획했다”고 평가했다.



### 강동원 학생, 제4회 전국 학생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강동원(주거환경학 2006) 학생이 제4회 전국 학생발명 및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팝업 렌즈 케이스’를 출품해 대상을 받았다. 강동원 학생이 출품한 콘택트렌즈 케이스는 뚜껑을 열면 실리콘 재질의 탄성수단에 의해 렌즈가 위로 올라오고, 뚜껑을 닫으면 렌즈가 보관 용액 속에 잠기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탄성수단을 누르는 구조물이 렌즈와 닿지 않도록 설계해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 대회는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일깨워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호텔관광대 재학생·동문 ‘김치버스’ 세계 투어



호텔관광대학 재학생 및 동문 3명이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김치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민(조리·서비스경영학 2003), 류시형(조리·서비스경영학 2002), 조석범(조리·서비스경영학 2006) 학생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김치 이미지를 그린 버스에 김치를 싣고 세계를 여행하며 지구촌에 김치를 알리기 위해 2011년 10월 러시아로 떠났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김치의 맛과 효능을 재발견하고, 김치가 세계의 모든 요리에 활용 가능한 건강하고 맛있는 재료라는 점을 알려 한식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김치버스’의 여정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과 북아메리카까지 약 5만km를 횡단하는 일정으로 2012년 12월까지 약 400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 제임스 후퍼 학생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무동력 완주

제임스 후퍼(지리학 2010) 학생이 2011년 9월 4~8일 기계적 동력 없이 마라톤·조정·자전거로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 서울 남산까지 약 570km를 완주했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지원하는 ‘Han Challenge(韓 챌린지)’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제임스 후퍼 학생은 총 99시간 30분 3초 만에 전 코스를 마쳤다.

2006년 19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최연소 등정을 기록한 제임스 후퍼 학생은 2007년과 2008년 북극점에서 남극점까지 4만 2,000km를 396일간 무동력으로 횡단하는 세계 최초 ‘Pole to Pole’ 탐험에 성공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선정하는 ‘올해의 탐험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 이동엽 학생,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 의장 선출

2011년 8월 10~1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Global Model UN Conference·GMUN)에서 이동엽(국제학 2010) 학생이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동엽 학생은 20여 개국 29명으로 구성된 GMUN 의장단에서 UN의 심사와 참가 학생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대회를 총괄하고 군축·국제안보, 경제·재정, 사회·문화, 특별정치·반(反)식민지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회의를 주관했다.

GMUN은 UN본부가 주최하는 모의유엔회의이다. 2011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61개국의 대학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 500여 명이 참가해 '지속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로운 인류 발전'을 주제로 논의했다.

### 동문 수상 소식

#### 손보미 동문, 2011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경희대학교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 손보미(문학박사 2006) 동문이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담요>로 당선됐다. <담요>는 도심의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산 사람들의 반응이 강렬한 단층적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단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평을 받았다.

손보미 동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으며,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해 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며 습작 시절을 거쳤다. 2009년 봄, 문학 전문지 <21세기 문학>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 고광현 동문, 제11회 경희언론문화인상 수상

고광현 동문(체육학 1973)이 제11회 경희언론문화인상을 수상했다. 고광현 동문은 1985년 고등학교 교사 시절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된 후 1988년 한겨레신문사에 입사, 사회부장·편집국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역임한 언론인이다.

고광현 동문은 "그동안 남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일들이 많아 '늦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덕분에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10년은 더 젊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통해 자랑스러운 경희인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희언론문화인상은 언론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경희의 자긍심을 높여준 동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언론정보대학원이 제정했다.

#### 이성부·양역관·김난주 동문, 제24회 경희문학상 수상

경희대학교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경희문인회는 제24회 경희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도둑산길>을 출간한 이성부(국문학 1960) 동문과 <좌안+우안 세트(에쿠니 가오리·초치 히토나리 지음)>를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 부부 양역관(국문학 1976)·김난주(국문학 1977) 동문을 선정했다. 상금은 부문별 1,000만 원으로 시상식은 2011년 11월 17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집·서울'에서 열렸다.

## 총동문회 소식

### 총동문회, 정기대의원총회

2011년도 총동문회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봉관(상학 1966, 서희건설 회장) 총동문회장은 2010년 창립한 군포시 동문회와 2011년 활동을 시작한 동대문구 동문회에 동문회기를 전달했다. 또한 2004년부터 6년간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정재규(치의학 1968) 수석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총동문회, 도봉산 등산대회

제7회 총동문회 등산대회가 2011년 10월 22일 도봉산에서 개최됐다. 등산대회에는 김정만 서울부총장, 김운호 대외협력처장, 이봉관 총동문회장 등 1,400여 명의 동문·직원과 그 가족이 참가해 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경희인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동문들은 용어천 계곡과 우이암을 거쳐 보문능선으로 하산하는 3시간 코스의 도봉산 산행을 마쳤다.



### 총동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총동문장학회의 2011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상학 1966, 서희건설 회장) 총동문장학회 이사장, 김성호(신문방송학 1965, (주)제양항공해운 회장) 수석부회장, 정재규(치의학 1968, 대한치과의사협회 교문) 수석부회장, 이수경(법학 1969,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사, 이진곤(정치외교학 1969, 경희대학교 공보위원장) 사무총장, 김정만 서울부총장, 임성호 교무처장, 심범상 학생지원처장, 김운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총동문장학회는 이날 학부생 26명, 대학원생 9명(외국인 학생 4명 포함)에게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총동문장학회는 1992년부터 10년 동안 732명의 학생에게 총 10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해왔다.

### 제2회 경희가족 바둑축제

제2회 경희가족 바둑축제가 2011년 3월 12일 서울캠퍼스에서 150여 명의 경희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바둑축제는 2010년 1회 대회에 비해 참석 인원이 70% 이상 증가해 동문 및 동문가족, 교수, 직원, 재학생, 경희의료원 직원 등 모든 경희인이 함께하는 친목 도모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둑대회는 평화조(2급 이상), 문화조(3~6급), 세계조(7~9급), 창조조(10급 이하), 재학생부 등 5개 조로 나뉘어 변형 스위스 리그 형식, 총호선, 덤 6집반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경희인들의 바둑 모임인 경희기우회 발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경희기우회는 향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바둑을 사랑하는 재학생 및 동문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총동문회는 매년 봄 경희대학교에서 바둑축제를 개최해 동문 및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

제15차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 및 골프대회가 2011년 7월 22~23일 이틀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시애틀 동문회장을 역임한 이종완(체육학 1970, Lyle Pacific 대표이사) 제15차 북미주총회 준비위원장이 차기 북미주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동문들은 2012년에 개최될 제16차 북미주 총동문회 총회를 기약하며 화합과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 2011 경희인의 밤

2011 경희인의 밤이 11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경희인의 밤 행사는 경희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미래를 공유하는 송년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인원 총장과 이봉관 총동문회장, 김용철 이사장 등 1,0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2011년의 성과를 축하하고, 세계 정상 대학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UNAI-경희 국제회의 영상 상영, 2011 성과 발표, 이봉관 총동문회장의 개회사, 조인원 총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는 그동안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그 일환으로 “연말 목련회의에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열린 대학, 투명한 대학’을 만들고, 대학다운 대학을 위한 ‘미래협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더 큰 미래, 더 멋진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목련회의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달라”고 말한 뒤 경희의 꿈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봉관 총동문회장은 “세계 100대 명문대학이라는 꿈은 실천 의지와 계획 아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이날 이건수(정치외교학 1960) 동문은 3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쾌척하고 동문들의 기부를 독려했다.



서울캠퍼스 본관 앞 분수대 조형물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기간: 2011.1.1(토)~2011.12.31(토)

### 공식 일정 (총 619회)

#### 공식·비공식 회의: 248회

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 회의

총장 주재 부총장 회의, 실무부서장 회의, 의료기관장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구성원 대표 간담회

#### 면담: 240회

부총장 /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 / 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 행사: 70회

교내외 공식 행사

공식 오·만찬

총동문회 행사



Global Eminence Forum



국토대장정 해단식



UNAI-경희 국제회의 준비



### 교외 인사 접견 : 55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협약 체결 관련 인사

### 언론 인터뷰 : 5회

〈조선일보〉, 〈MBC〉, 〈대학주보〉 등

### 해외 출장 : 1회

출장 사유: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 참석 및 기조연설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 기간: 2011.9.12~ 9.18 (6박 7일)



UNAI-경희 국제회의



독서의 즐거움 특강



프레드 달마이어 교수 환담

## 총장 연설문

### 1. UNAI-경희 국제회의

기조연설문 | 2011년 9월 14일

##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제언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님.

내빈 여러분.

UN Webcast를 통해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세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와 경희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평화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ace)' 30주년을 맞아, 이 날의 제안자인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와 지난 62년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온 경희대학교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UN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UN은 9월 21일을 "평화 정신을 기리고, 강화하는 날로 헌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UN은 "모든 회원국과 국민, UN과 지역기구, 비정부기구와 개인을 초대합니다."

UN의 이와 같은 입장이 제36차 총회 의결을 통해 세상에 공표될 즈음, 동서 양진영 정상은 긴박한 정세의 서로 다른 시각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은 주도하는 소련은 악의 제국입니다.'

'모험주의와 무례함에 빠져든 미국은 국제사회에 큰 과오를 초래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에 막중한 긴장을 조성하던 이런 대치 상황에도, 모두가 우려했던 또 다른 비극은 현실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정부와 UN의 정치적 노력으로 또 다른 인류의 참사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서 간 '충돌 결여'가 지구촌 평화를 담보하진 않았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걸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내전에서, 브룬디, 네팔, 앙골라, 소말리아 내전, 러시아-체첸 분쟁에 이르기까지.

절규와 회한의 역사가 되풀이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평화의 날 역사'를 반추하며, 평화의 또 다른 측면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해선 정치적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이한 이념과 신념, 이익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예견될 때, 정치, 혹은 외교는 긴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외교만으로 대립과 충돌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느 정치지도자의 말처럼, '정치적 노력, 외교적 수단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인류 의식의 '초월적 역량'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안자도 바로 이곳 UN본부 앞뜰에서 그 날의 5주년을 맞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앞에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국익을 강화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도모할 인류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화의 선결 조건인 사람의 마음.

정치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류 의식.

바로 이런 초월적 마음과 의식의 근원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것이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서는 물리적 충돌의 위험, 그리고 문명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기아, 질병, 빈곤, 소외, 환경 파괴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마음과 의식의 '초월적 개입(transcendental engagement)'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이런 견지에서, UN은 그간 '평화 보존'과 '인간 존엄성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행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UN은 더 나은 삶, 삶의 조건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천명했습니다.

UN의 이와 같은 뜻에 전 세계 시민사회도 전례 없는 호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400여 NGO, NPO 단체가 UN의 협의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Global Compact도 지난 2000년 설립돼, 8,700여 기업체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추세는 지구적 차원의 시민의식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더 나은 지구마을 건설에 확장된 참여와 결속이 필요하다는 시민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11월 반기문 총장님의 리더십과 함께 발족한 UNAИ와 670여 회원 학술기관도 이 변화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교육의 힘, 지성의 힘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새 세계, 새 마음을 열어가자는 것이 그 설립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몇 가지 최근 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지향하는 교양대학입니다.

신입생 4,000여 명이 자신과 타인, 자연과 문명을 성찰하며, 인류공동체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가꿔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사회봉사단'이란 기구도 올해 출범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지구적 연민을 키워가자는 것이 이 기구의 설립 취지입니다.

'자아를 넘어선 자아', '세계를 넘어선 세계.'

그 꿈과 열정을 키워보자는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최근 경희 캠퍼스엔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손수 만든 빵을 판매해, 어려운 동료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전기를 써드리고, 원유가 유출된 해안가로 달려가 사고 현장의 기름때를 없애느라 '보람 있는 노동'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진도 바쁜 시간을 쪼개, 교육, 연구의 실천적 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재소자를 위한 '실천인문학' 프로그램에 기여이 동참하고, 수많은 집담회를 개최하며 '시민교육과정' 개발에 깊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NGO 단체에 무상으로 로고를 제작해주고, 해외 근로 이주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경희의 의료진과 직원 분들도, 국내외 재난 현장과 의료 취약지구를 찾아가, 헌신적 진료와 봉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한 틀니 제작에도 기여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경희의 이야기'는 물론 경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 수많은 대학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꽃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단순 봉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 현장에서 교육, 연구에 '통합된 형태'로 승화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경희와 함께 오늘 희익을 주관하는 UNAI와 그 회원교들의 송고한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뜻과 함께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인류애, 지구의식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면, 차세대는 인류 평화의 또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맞아, 세계기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의입니다.

평화의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과 '지구봉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달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원적 필요입니다.

대학은 물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대학의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발전과 사적 성취,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공동선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깃든 학문적 탁월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지구는 바로 그런 노력과 함께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인간 존엄을 위한 교육·봉사 기금'은 평화에 또 다른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젊은 꿈, 꿈꾸는 존재 Homo Esperance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대학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과 유리된 상이탑을 넘어, 궁핍과 풍요, 소외와 포용, 고통과 연민의 간극을 좁혀가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학문 탐구, 열린 세계open universe와의 대화를 주선하며, '성찰적 인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한가운데엔 학술, 실천, 봉사의 조화로운 결합과 인류애를 향한 우리들의 '초월적 개입'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한 학문적 실천, 창조적 봉사가 더욱 견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계평화의 날, 또 다른 30년"이 요청하는 미래대학의 소명<sup>소명</sup>이자, 인본<sup>인본</sup>을 중시하던 근대 대학의 새로운 부활<sup>부활</sup>이 아닐까 합니다.

## 2. 경희의료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기념사 | 2011년 10월 5일

# 경희의 정신세계, 의료원의 미래

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무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희 특유의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의 시각에선 무모해 보이는 경희의 미션과 미래를 향한 열정이 끊임없이 움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분께서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교향곡 CD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인간과 우주, 생명의 신비에 관한 대서사를 담고 있는 말러 교향곡을 즐겨 듣지만, 그분이 전해준 말러 교향곡은 ‘인류’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 그 열정을 담아낼 ‘신비로운 합창’을 주제로 한 곡들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의료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경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의료원의 앞날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꿈’, 그리고 그 꿈 실현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을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난 60여 년, 경희는 경희 특유의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그 전통과 함께, 대학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한 가운데엔 ‘인간,’ 혹은 ‘인류’란 대학의 근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잘살기운동’,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인류평화운동’,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쌓아온 탁월한 성취는 더 나은 인간과 세상을 위한 경희의 끊임없는 노력을 대변해줍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경희의료원은 지난 1971년 설립됐습니다.

정착기, 성장기를 거쳐 이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0년, ‘건강한 인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경희 의과학과 의료세계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제3의학을 모색하며, 동서의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을 아우르는 경희 특유의 종합 의과학 체계는 바로 이와 같은 창조적 발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희의 창조적 여정에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 환경의 빠른 변화로 어려운 시기도 겪었습니다.  
 대형 병원의 잇단 출현과 국경을 넘어서 의료사회의 경쟁 심화로 위축감을 느껴야했던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지난 수년간 우리는 '성찰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내외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 분석 업무도 수행했고, 의료기관 전 구성원이 함께해 경희 의과학의 새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경희의 전통 위에 새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경희의 강점인 의학계열의 학제간 협력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창조적 의생명과학”, “임상, 연구, 교육의 통합 발전”을 시도한다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심혈관센터, 암센터, 뇌신경센터와 같은 분야를 활성화해 중증 치료 분야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료과의 역량과 시설을 강화해간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중앙 경영 방식을 탈피해,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병원별 자율운영체제도 도입 중입니다.  
 최근엔 미래 의료의 다양한 국내외 산학협력이 가능한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의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의 뜻과 의지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구성원 대표와 보직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료원 경영을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노와 사가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의료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원만한 노사교섭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임금 책정을 이뤄준 의료원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명철 부총장님과 의료원 경영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학원장님께서 의료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역사란 단지 지나간 사실을 기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첨언하면, 경희의 역사는 다른 기관, 다른 사회의 그것처럼, ‘희망과 번민’이 교차하는 역사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성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와 공감, 열정과 창조적 노력일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공과를 함께 기억하며, 더 큰 경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서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경희 특유의 “영혼”, 인류애를 향한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인류 건강을 위한 “신비로운 합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시간이 말해주듯이, 경희엔 저력이 있습니다.

경희는 우리 모두의 헌신적 노력으로 국내 종합대학 정상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 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희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로가 더욱 신뢰하고, 돕고, 보태고, 나누면서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의료원의 비약적 발전을 이뤄내며, 이웃과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대학병원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났으면 합니다.

경희의료원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기구입니다.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인류애를 향한 열정과 함께 더 나은 인간과 세상, 인류 건강을 지켜주는 ‘지속가능한 경영’, ‘도약과 발전을 위한 건강한 재정 기반’을 도모합니다.

임상, 연구, 교육의 창의적 결합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경희의료원을 함께 이뤘으면 합니다.

끝으로, 뜻 깊은 40주년 행사를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3. Magnolia 2011

인사말 | 2011년 12월 21일

## 전통과 상상, 담대한 경희의 세계

경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목련회의입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목련회의가 '배려와 존중', '소통과 화합'의 대학문화를 열어가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지난 9월,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UN본부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감회를 갖게 한 회의였습니다.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 환영사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인류의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난제는 평화 문제를 비롯해, 빈곤, 소외, 여성, 아동, 인권, 환경과 같은 인류 공동의 의제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풀기 위해 반총장께서는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큰 사고의 틀과 실천을 위해 대학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고등교육과 인간 존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의 대미는 합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UN Webcast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레논의 Imagine을 함께 불렀습니다.

뉴욕과 서울, 태평양을 가로질러 우리가 부른 이 곡은 사실 저도 젊은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랫말 이런 부분이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 숨 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나를 몽상가라 하겠지만, 나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신념’, ‘종교와 문화’의 차이와 모순을 넘어서고 싶어 했던 존 레논의 Imagine은 곡 발표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전, 반핵 가수인 그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진실”이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UNAI(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회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은 단지 세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의 호소나 합창곡이 지난 60여 년 경희가 만들어온 오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희의 전통은 “학문과 평화”입니다.

경희는 학술기관으로, 그 무엇보다 학문적 탁월성을 존중해왔습니다.

치열한 학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경희엔 또 다른 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경희는 학문과 인류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해왔습니다.

대학으로 학문적 소임을 다하되, 그 학문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경희의 학풍입니다.

우리의 교가는 그래서 “온오한 학술 연구”를 노래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실천 의지, “평화 위해 싸우세”를 호소합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범한 경희.

그 후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의 도정을 함께한 경희.

그 경희는 사회의 현실로부터, 인류의 현실과 유리된 대학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학술 탐구에 몰입하되, 학문의 실천적 함의를 모색했습니다.

인류사와 문명사에 기여하는 학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왔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학문’, ‘진리 탐구’를 지향하는 대학의 존재 이유는 ‘평화로운 세상’, ‘학술세계의 공적 실천’ 없이는 왜소해질 뿐입니다.

최근 들어 해외 대학들은 대학사회의 이러한 소명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대학은 2011 Giving to Help Campaig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골 깊은 문제, 지구사회의 구조적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은 거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통합 지식”과 “지구사회 참여”를 대학 운영 기조로 설정해, 교육과 연구 차원의 실천적 결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노력도 돋보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해를 “공적 봉사의 해 Year of Public Service”로 선포해, 인류를 위한 “큰 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학이 소외된 인류의 보건을 위해 설립한 Global Health Institute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대학 내 가장 영예로운 University Professorship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남미 주민을 위해 연구·교육·실천의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온 교수께 드린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 대학을 부러워합니다.

아마도 학술기관으로 이들이 견지하고 있는 학문적 탁월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와 함께 혁신의 선두에 선 이 대학들은 그것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진리 추구란 전통적 기능에 더해, 대학의 또 다른 가치, 인류애를 향한 공적 실천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깃든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지난 62년간 이 정신을 구현해왔습니다.

개교 이래 농촌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과 평화운동, 소외된 분들을 위한 실천인문학과 다양한 봉사활동, 그리고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지구적 존엄을 수행해왔습니다.

경희는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대 전환”을 주제로, 경희가 열어가야 할 미래를 논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룬 성취와 보람을 바탕으로, 경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토론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과 ‘미래협약’도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선 그 차이를 극복하는 기쁨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희는 지금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희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면의식의 오류와 성장 가능성을 성찰하며,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인 자연과 사회, 지구와 문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명의 발원지와 현대인의 사유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현자의 고향을 방문하면 어떨까.’

‘인간의 수난을 초래한 지구촌 현장을 탐방하며,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성취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우리 학생들의 큰 관심사인 전공 학습과 사회 진출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이런 질문들이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제가 꾸는 꿈은 사치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직업과 경력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이 강조되고, 배타적 이익 추구가 만연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질문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대학이 처한 현실도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최근 우리 대학사회는 연구비 총량, 논문 수, 취업률과 같은 표준화된 지표와 함께, 연도별 경영 성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대학다운 대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쟁적 현실은 그런 시도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런 현실의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 개인과 사회의 단기적 목적에 흔들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학사회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맘 흘려 만들어온 ‘Global Eminence 2020’과 ‘미래협약’이 그런 도전의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돼, 대학다운 미래대학,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1994년, 설립자께서 남긴 명상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2007년, 하버드대학교 파우스트 총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학문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 알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대학의 역사와 문화 속에 쓰인 이 두 문구는 매우 흡사합니다.

대학의 길, 인류의 길에 관한 관조와 성찰이 이 유사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길, 문명의 길을 성찰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

경희가 안아야 할 책무입니다.

경희 특유의 가치와 전략이 담긴 'Global Eminence 2020'과 그 윤리적 토대를 이룰 '미래협약'이 그런 노력의 중심에  
섰으면 합니다.

오늘 경희는 담대한 경희의 세계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희의 '소통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대학문화와 함께 그 희망찬 도전이 힘차게 출발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올해 경희엔 기분 좋은 일이 유독 많았습니다.

교육, 연구, 실천 분야에서 남다른 성취가 있었습니다.

경희가 국내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세계적인 대학, 존중받는 대학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육, 연구에 매진하신 우리 교수님.

학업에 매진하며,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 대학 일 모든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우리 교직원분들.

늘 경희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23만 동문 여러분.

우리 경희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성취와 희망의 2011년을 이뤘습니다.

다 함께 자축하면서, 큰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 4.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 2012년 2월 15일

## 내 삶, 그 삶의 주역이 된다는 것

2011학년도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학부모, 친지,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앞두고, 저는 지난 몇 주간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경희와 함께,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룬 여러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졸업식에선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이 시기, 이 시점이 밝지만은 않은 미래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점증하는 불황의 조짐과 개선되지 않는 취업난.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

흔들리는 대학의 신뢰와 정체성.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에 스며 있는 우리의 삶과 대학의 미래는 근원적인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삶, 그 삶의 주역이 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경희와 함께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꿈과 포부, 전공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대학인으로, 지성인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내 삶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이란 학문과 진리의 전당에 첫 발을 들여놓은 후, 지성의 책무에 관한 이 주제가 의미 있게 다가셨을 줄 압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한 대학생의 절규를 지켜봤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접한 교육 내용이 대학의 본질인 큰 물음, 큰 학문과 괴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절규였습니다.



그 학생은 끝내 성명서를 남기고 자퇴했습니다.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 내몰린 현실을 규탄하며, 대학 다니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한 기업인 빌 게이츠 회장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녔던 대학은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하버드대학입니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역시 자퇴했습니다.  
자퇴 후 수십 년이 지난 얼마 전, 게이츠 회장은 하버드로 돌아갔습니다.  
명예학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교육의 기회가 상실된 채,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그것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더 큰 시야로, 더 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짜인 대학의 교육체계.  
물론 그 교육체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의 생생한 인간관이 보여주듯,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치우침입니다.  
쓸림입니다.  
대학이 개인의 생존과 안위, 영달에 치중하며, 이웃의 고통과 소외를 외면하는 교육에 몰두할 때, 대학의 존재 이유는 위축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과 대학의 미래는 경쟁과 성취의 외길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학은 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결 짓는 교육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철학적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적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주관과 선호, 취향과 선택에 따라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삶을 기획하는 현대인의 역량은 바로 우리가 만든 현실에 의해 크게 제약받습니다.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삶의 가치로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이익과 영달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적 삶의 가치는 따라야 할 신화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지만, 현대 사회가 만들어놓은 가치체계에 묻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말하는 현대인, 현대 사회의 "두 얼굴"입니다.

대학은 이 양면성과 함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 문명에 대한 보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대학의 본령이지만, 개인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산하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 번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철학의 문제는 바로 현실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학의 전통적 소임은 학문과 진리의 전당으로, 개인과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학문의 자유로운 선택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무게는 그 선택을 명목적으로 만듭니다.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뿌리 깊은 경제와 사회, 시장의 요구.

이를 떠받치는 촘촘한 인간관계.

표준화된 현대적 가치에 갇힌 개인적 욕구와 충동.

이 모두 대학의 자유로운 선택을 구속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교육의 종언'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인간시대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물론 극적인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취업과 자격증 취득의 무게를 실감하는 여러분이나, 이를 교육에 반영해야 하는 대학 모두, 삶과 대학의 미래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루 파우스트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현대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긴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풀길 원합니다.’

‘개인적 성취와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현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학은 이를 위해 지식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등교육은 더 큰 문제, ‘세계를 통찰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근원적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지난 60여 년, 인간과 세계, 더 나은 인류의 미래에 천착해온 경희의 설립자께서도 20여 년 전 유사한 의미의 시 한 소절을 남기셨습니다.

‘끝없는 저 하늘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그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와 남이 아닌 만물도 함께 있다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이 사람인 것은, 철학자 포이어바흐의 말처럼, ‘우리가 먹고사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것’에 종속돼 있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생명인 까닭에 인간은 생존과 향유를 위한 열정과 힘에 의지를 키워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 되기’는 생존 이상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내던져진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 성찰을 근간으로, 끊임없는 ‘더 나옴’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엔 나 자신의 이익 추구하고 영달만으로 만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배타적 성장과 변명만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공동체도 많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 평범한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린 학문과 진리의 전당을 추구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결합, 자아와 세계의 창조적인 결합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역이 된다는 것.

주체성 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체의 완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체를 의식하는 의식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우주Cosmic Egg라는 온전해 보이는 실체가 깨어진 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절대라는 개념이 의식 확장과 더불어 무한히 진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틈, 그 열린 가능성과 함께 나의 성공과 영달이 타인을 영접하고, 세계를 환대하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대학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큰 학문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경희는 지난 63년,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 위에 더 나은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지향해왔습니다.

내 삶, 그리고 그 삶을 관조하는 “문화세계”와 함께 더 큰 개인,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경희의 전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 사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꿈꾸며, 타자와 자연에 열린 또 다른 삶의 주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 삶’이 관조하는 ‘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5. 2012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인사말 | 2012년 3월 8일~9일

# 창조의 여정 - 미래대학의 길

학원장學園葬 기간 동안 노고해주신 교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원장은 경희학원이 지내는 장례입니다. 여기 계신 교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상주가 돼 학원장을 경건하게 치러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작년 이맘때, 이곳 양양에서 '대전환'을 주제로 합동교무위원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성취를 바탕으로, 경희의 '더 큰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찬회 후 우리 교수진,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함께한 글로벌에미넌스포럼(Global Eminence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책자로 정리해 배포했습니다만, 이 포럼에선 '미래대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또 지난해엔 '대전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미래전략'과 '미래협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후속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사말의 모두로 학원장 관련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결식에서 설립자 추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설립자께서 개교 50주년에 연설하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이 죽더라도, 세계적인 대학은 반드시 만들어놓아야 하겠다는 결심, 그 마음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처음 접했습니다. 설립자께서 항상 해오신 말씀이지만, 개교 50주년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직접 그 연설을 들진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 모색해온 세계적인 명문의 조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는 저뿐 아니라, 경희인 모두의 화두일 것입니다. 나아가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 대학가의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명문을 넘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명문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학이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여러 제도와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냉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새것을 만들고, 변화를 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정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변화엔 현실의 무게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도전은 역사의 연속이자, 불연속입니다. 이 모순된 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어떤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교무위원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함께 실행해가야 할 과제입니다.

탁월성을 건지하면서도, 소통과 참여, 긍정의 학술풍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경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희엔 학문적 탁월성 건지를 위한 분위기,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더 가시적인 형태로,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발전전략, 운영체제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교무위원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과감히 해결해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오늘 연찬회 주제 “가지 않은 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꺾질을 깨고 나와 날아오르는 새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 연설을 할 때도 바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데미안>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취임사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 명문대학의 새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후 그 화두에 대해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원 시절,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을 했지만, 주류 정치학 책은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신학 서적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마슬로 Abraham H. Maslow의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라는 책입니다. 번역하면, ‘인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인간 본성에 좀 더 접근한다는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마슬로는 인간의 두 가지 속성으로 ‘소속됨 belonging’과 ‘뿌리내림 rooting’을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세계에선 우리가 ‘어떤 조건, 혹은 맥락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에 의해 ‘나’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이런 현실의 존재 이유를 넘어서려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속됨, 뿌리내림의 또 다른 메커니즘이 아닐까 합니다. ‘Meta-Valu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Transhuman’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현세적, 생물적 욕구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 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 가치지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 ‘무엇’이라는 가치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인문적 사유, 우주적(과학적) 통찰, 예술적 영감과 표현 등이 이 길과 함께할 것입니다.

대학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처한 현실, 대학사회가 처한 역사는 현재인 동시에 과거,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현실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하고, 가치를 함께 꿈꿀 때 “대학다운 미래대학”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는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열린 미래, 열린 세계는 ‘그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는 열정과 의지, 실천을 통해 이뤄내는 성취의 세계일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무궁한 가능성’을 탐색해온 경희의 미래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논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학문적 수월성을 그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그 수월성은 현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대학이 생산하는 논문과 저서 총량은 어떨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에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연구자의 치열한 문제의식, 각고의 노력이 총량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총량 외에도, 또 다른 학문적 수월성을 중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양에 상관없이 진정한 석학의 길, 대가의 길, 거장의 길을 중시해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큰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습니다. 향후 경희대학교가 학문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찾아달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수와 함께 토론을 거듭하면서 바로 오늘 브리핑 세션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도 논문 총량과 연구의 질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편에선 총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선 학문다운 학문의 길을 강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론은 둘 다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학술문화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테뉴어<sup>tenure</sup>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교수 개개인도 인간이다 보니 막상 대학 교수직을 맡고 나면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학술문화를 이룩하려면 테뉴어 제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학자적 양심에 따라, 품위 있게, 명예 손상 없이 그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본인 스스로 시기와 학문적 성과를 정하고, 엄정한 교내외 리뷰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면 테뉴어를 부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정교수로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획팀 결론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술문화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의료기관도 특색에 맞게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경희의 미래전략은 2020년 세계 정상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술문화 2020’이라는 주제를 놓고 구성원이 공감과 합의를 이뤘으면 합니다. 대가(大家, 석학(碩學), 거장(巨匠)을 존중하는 양심과 긍지를 만들고, 우리 학생과 사회가 이를 존경하는 대학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연찬회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간 소중히 가꿔온 ‘평화’, ‘대학의 공적 실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63년 동안 추구해왔던 “학문과 평화”의 전통이 새 세기의 요청에 맞춰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대학과 사회를 포함해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적 실천’을 위해 경희의 역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희의 소중한 가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대학행정입니다.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가고자 한다면, 대학행정도 이를 받쳐줘야 합니다. 자율과 전문행정, 전산화 등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문화, 공적 실천, 행정, 이 세 부분이 어우러질 때, 경희는 새 시대를 향해 또 다른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찬회 후반부에 발표가 있겠지만, 대학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캠퍼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기다려온 캠퍼스 마스터플랜 사업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재원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틀간 연찬회를 통해 ‘미래대학의 길’, ‘창조의 여정’을 열어갈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로 본 경희 2011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12. 3. 1 기준

## 1.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 2010 결산 | 2011 예산 |
|-------------------|---------|---------|
| 서울캠퍼스 교비회계        | 2,736   | 2,847   |
| 국제캠퍼스 교비회계        | 1,652   | 1,772   |
| 산학단회계(서울/국제 통합공시) | 1,189   | 1,598   |
| 경희의료원             | 2,656   | 2,762   |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1,933   | 2,049   |

\* 2010: 결산 기준 / 2011: 예산 기준  
천만에서 반올림

## 2.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서울   | 국제  | 계     |     |
|-------|------|-----|-------|-----|
| 전임교원  | 교수   | 463 | 196   | 659 |
|       | 부교수  | 235 | 84    | 319 |
|       | 조교수  | 190 | 101   | 291 |
|       | 전임강사 | 80  | 31    | 111 |
| 총 교원수 | 968  | 412 | 1,380 |     |

## 3. 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서울  | 국제  | 계   |
|-------|-----|-----|-----|
| 일반직   | 210 | 164 | 374 |
| 연구직   | 8   | 4   | 12  |
| 고용직   | 14  | 9   | 23  |
| 기능직   | 54  | 37  | 91  |
| 연봉계약직 | -   | 13  | 13  |
| 총 직원수 | 286 | 227 | 513 |

## 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경희의료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
| 사무직      | 170   | 100       |
| 간호직      | 746   | 544       |
| 약무직      | 34    | 35        |
| 의료기사직    | 218   | 165       |
| 연구직      | 8     | 1         |
| 기능직      | 489   | 8         |
| 임상계약직 교원 | 69    | 66        |
| 전공의      | 588   | 184       |
| 기타       | 49    | 9         |
| 총계       | 2,371 | 1,112     |

## 5. 재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서울     | 국제     | 계      |
|----------------|--------|--------|--------|
| 학부             | 13,253 | 12,393 | 25,646 |
| 대학원(전문, 특수 포함) | 5,241  | 1,723  | 6,964  |
| 총 학생수          | 18,494 | 14,116 | 32,6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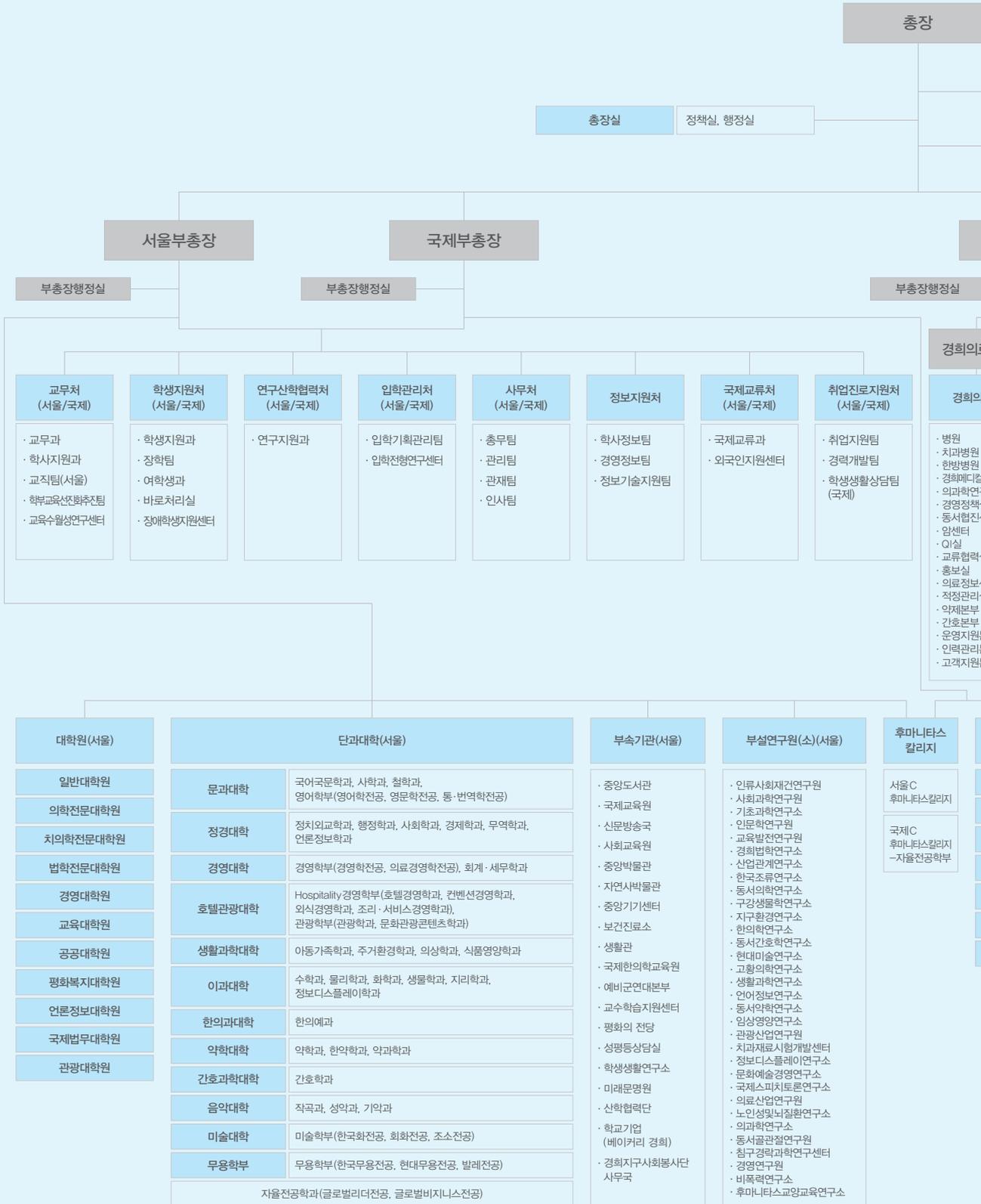
## 6. 취업률

단위: %

| 구분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
|----|---------------|
| 서울 | 54.1          |
| 국제 | 54.8          |
| 계  | 54.5          |

\* 학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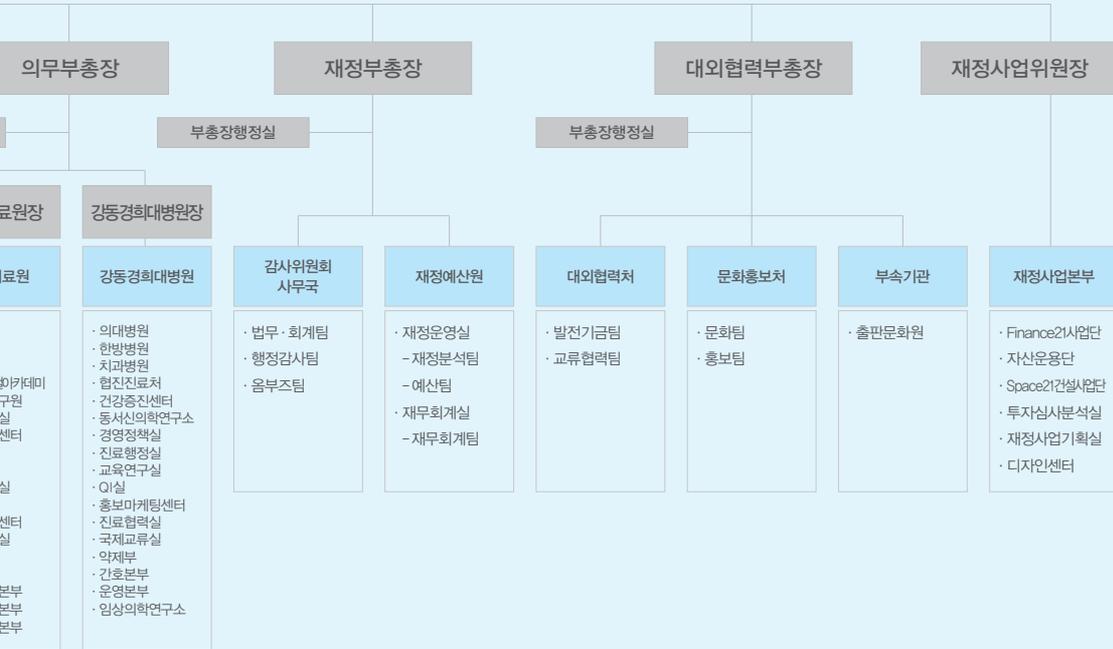
# 경희대학교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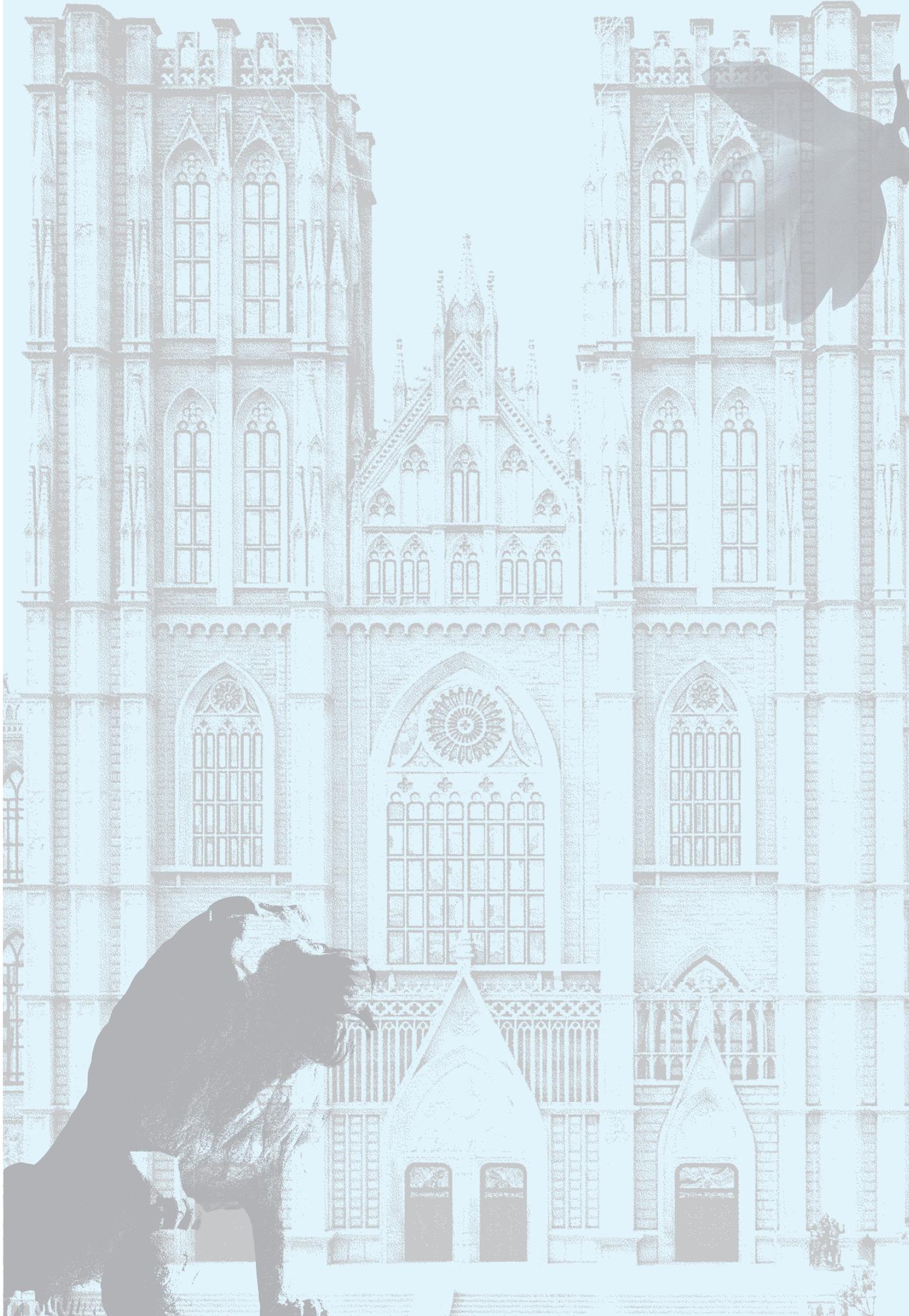


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등

미래정책원 전략팀, 제도·인재팀, 평가팀



| 대학원(국제)    | 단과대학(국제)   | 부속기관(국제)   | 부설연구소(국제)   |
|------------|--|--|---|
| 일반대학원      | 공과대학<br>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             | · 중앙도서관<br>· 신문방송국<br>· 글로벌평생교육원<br>· 보건진료소<br>· 생활관 (우정원/제2기숙사)<br>· 체육부<br>· 체육교육관<br>· 공학교육혁신센터<br>· 우주과학교육관<br>· 연구·실험지원센터 | · 국제지역연구원<br>· 레이저공학연구소<br>· 산학협력기술연구원<br>· 비교문화연구소<br>· 자연과학종합연구원<br>· 사회과학정책연구원<br>· 생명자원과학연구원<br>· 예술디자인연구원<br>· 스포츠과학연구원<br>· 정보통신SOC연구소<br>· 식물대사연구소 |
| 동서의학대학원    | 전자정보대학<br>전자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체의공학과  | · 예비군연대본부<br>· 교수학습지원센터<br>· 행정박물관<br>· 산학협력단<br>·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br>· 원자센터<br>·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사무국                                  | · 멀티미디어기술연구소<br>·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소<br>· 영상정보소재기술연구소<br>· 해정문화연구소<br>·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br>· 피부생명공학센터  |
| 국제대학원      | 응용과학대학<br>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우주과학과   |  |   |
| 체육대학원      | 생명과학대학<br>유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  |   |
| 교육대학원      | 국제대학<br>국제학과   |  |   |
| 테크노경영대학원   | 외국어대학<br>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  |   |
|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 예술·디자인대학<br>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 도예학과, Post Modern 음악학과 |  |   |
|            | 체육대학<br>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과   |  |   |
|            | 동서이과학과   |  |   |



## 목련리포트

2012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발행일 2012년 4월 9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www.khupress.com](http://www.khupress.com)

[khsd3080@khu.ac.kr](mailto:khsd3080@khu.ac.kr)

© 경희대학교, 2012

ISSN 2005-7539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